A THEOLOGY OF INTERDEPENDENCE AS A BASIS FOR

TRANSFOMING PREACHING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A Dissertation

presented to

the Faculty of

Claremont School of Theolog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Doctor of Ministry

by

Kwangho Kim

May 2016

This dissertation completed by

Kwangho Kim

has been presented to and accepted by the
faculty of Claremont School of Theolog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of the

DOCTOR OF MINISTRY

Faculty Committee

K. Samuel Lee**,** Chairperson

HyeRan Kim-Cragg

Dean of the Faculty

Sheryl A. Kujawa-Holbrook

May 2016

ABSTRACT

A THEOLOGY OF INTERDEPENDENCE AS A BASIS FOR

TRANSFOMING PREACHING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by

Kwangho Kim

The project critically reflects on discrimination based on disability found in the writer's sermons and ministry strategies. The project points out distorted image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due to misinterpretation of the Bible and suggests a relationship-oriented theology and theology of mutual interdependence.

This study criticizes three of the writer's sermons from the perspective of the theology of mutual interdependence and proposes sermons based on the theology of mutual interdependence as a solution. The project argues that Korean church pastors need to realize and the value of the theology of mutual interdependence to helps them recognize discrimination against people with disabilities in their ministries. Church communities should work together to build and re-build a system and the structure of their ministries to create a mutually interdependent community for both the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those without.

Keywords: Disability, Disease, Theology of Relation, Theology of Mutual Interdependence, Preaching

ABSTRRACT

이 프로젝트의 출발은 교회내 장애인, 비장애인의 차별적 사고에 있다. 이것을 목회자의 설교와 연관 지어 연구하였다. 이를 위해 장애와 질병을 포함하는 성서 구절 해석에 있어서 왜곡된 관점들을 짚어 보았다. 그리고 이에 대응하는 해결책으로 관계 지향적인 상호의존의 신학에 대해서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나의 설교 세편을 정해진 기준에 의해서 분석한 후 상호의존의 신학의 관점에서 비판하고 해결 방안을 만드는 것이다. 이것을 상호의존의 신학에 바탕을 둔 설교문으로 제시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목회자가 상호의존의 신학적 입장을 갖는 것이 중요함을 지적하였다. 그러나, 이는 단순히 개인의 의식 개혁을 통해서만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전체의 구조와 제도, 시설의 개혁이 수반되어 상호의존의 삶을 살아낼 때 교회 공동체가 온전하고 건강 할 수 있음을 가리킨다.

키워드: 장애와 질병, 관계신학, 상호의존의 신학 , 설교

Summary

Many Bible verses speak about disabilities and diseases. These verses have been interpreted as a source for distorted theology that leaves scars and wounds in the minds of people with disabilities and relationships between church members. Instead, sermons should be based on a balanced theology that does not discriminate.

The project first defines disabilities. The project argues that an important aspect of disability is that persons with disabilities experience social barriers, whereas they actually should be valued as the created in the image of God. Because of these barriers, disability is not merely a private matter, but a crucial matter for all communities. Christian communities should develop this awareness for their ministries.

The theological foundation for the project is the theology of mutual interdependence. All creatures relate to others and are dependent on others. The existence of all living creatures is dependent on others. one sided, dominant, or oppressive relationships bring conflicts and eventually the destruction of relationships. The theology of mutual interdependence recognizes the dignity and value of others and the existence of others as essential to Christian community.

Therefore, the primary aim of the project is to find theological factors that cause discrimination against people with disabilities to set a right direction for the writer's sermons and ministry at Busan Chungbu Church and to increase the writer's awareness of disability. After analyzing the writers' sermons, the suggests a renewed sermon based on the theology of mutual interdependence and relationship-oriented theology. Through the process, the project pursues the restoration of the harmony of the Christian community and transformation of the pastoral context to one in which all members are equal and

equally enjoy community based on mutual interdependence. What distinguishes this study from others is that the project reflects on the writer's ministry and sermons a practical method to reform sermons and the practical values and meanings of the relationship-oriented, mutual interdependent theology.

The results of the analysis of the writers' sermons indicate first that the interpretation of the Bible had been done from a conventional perspective that lacked disability awareness and that was not critical of discrimination against people with disabilities. Second, vocabulary and language used in the sermon had not been carefully chosen. Third, the interpretation of l biblical texts was insufficient for liberation from this conventional perspective.

After the analysis, the project presents a sermon based on the or a relationship-oriented theology of mutual interdependence. The implication is first that the whole process, including choosing texts, writing sermons, making titles, should be based on the theology of mutual interdependence. Second, the writer not only rejects conventional viewpoints on disability, but also discusses the significance of vocabulary, language, story, example, logic, and theology to create a better sermon to lead to a balanced community that is aware of difference and never discriminates.

Creating a balanced community is possible through changes perceptions about disability and practicing mutual interdependence. The system, structure, administration, and facilities of church communities should support transformation. The writer hopes that the findings and suggestions of the project contribute to the Korean church to create communities for both those with disabilities and those without.

국문요약

성서에는 장애와 질병의 내용을 담고 있는 구절들이 다수 등장한다. 이 본문들이 설교 될 때 온전한 신학의 바탕 위에서 되어지지 않으면 장애인들에게는 상처를, 비장애인들에게는 장애에 대하여 왜곡된 신학적 사고를 심어줌으로써 교회 공동체 내에 온전한 관계형성을 가로막는다. 나의 목회 현장인 부산 중부교회의 설교에 나타난 이러한 면들을 파악하여 교회 내 장애인의 인식과 설교에 바른 방향을 제시하는데 이 논문의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상호의존의 신학에 바탕을 둔 설교를 제시하는 것이다. 나의 연구는 '설교와 예배를 통한 치유의 변화'를 공부하기 전의 설교 세편을 상호의존의 신학의 관점에서 분석하여 비판적으로 살펴보고, 관계지향적인 상호의존의 신학에 기초한 새로운 설교를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통하여 장애인 비장애인 혼합 교회의 건강한 공동체성 회복을 추구하는 목회 현장의 변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이 논문의 독특함은 나의 목회 현장 분석과 성찰, 그리고 변화를 추구하였다는 것이고 이를 위해 관계지향적 상호의존의 신학을 제시하였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장애인과 비장애인에 대한 개념 정의를 하였다. 중요한 정의는 하나님의 창조 안에서 존중 받아야 할 '다름' 가운데 사회적 조건에 의해

장벽을 경험하는 것을 장애, 그것을 경험하는 사람을 장애인이라 의미하는 것이다. 이것은 장애인의 문제가 개인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공동체적 관점에서 다루어야 할 문제라는 것이고 교회내에서도 동일한 관점을 필요로 한다.

그래서 그 동안 장애와 질병에 대한 성서 본문이 목회자에 의해서 설교 될 때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여졌던 이전의 해석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더 나아가 이 해석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가에 대해 분석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상호관계성과 상호의존성에 대해서 기술하였다.

이 논문의 사상적 배경은 관계지향적 상호의존의 신학이다. 모든 생명은 관계를 필요로 하며 독립적일 수 없고 관계 없이 존재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관계는 어느 한 쪽의 일방적 관계가 아닌 상호존중의 관계이어야만 한다. 이것에서 더 나아가 서로는 서로에게 기대어 살아가는, 서로의 존재가 서로에게 의존하여 살아가는 존재로, 존재 자체가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됨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 상호의존의 신학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나의 목회 현장에서 선포된 설교에 나타난 상호 의존성의 분석과 이를 기초로 한 변화의 추구이다. 따라서 분석 자료는 2012 년에서 2014 년 까지 행해진 설교 중 질병과 장애의 내용을 담고 있는 본문을 사용한 설교이다. 설교

분석을 위해 세편을 선정하였으며 설교의 제목, 본문 해석의 관점, 원문 번역의 문제, 용어 사용, 상호의존의 신학 적용 여부라는 분석 기준을 가지고 살펴보았다.

나의 설교를 분석한 결과 첫째, 본문 해석의 관점에 있어서 기존의 무비판적이고 관습적인 관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계를 보여주었다. 지양되어야 할 관점이 그대로 사용되고 있음을 보였다. 둘째, 용어 사용에 있어서 부적절하여 사용되지 말아야 할 용어가 그대로 사용되고 있음을 보였다. 셋째, 원문 해석의 부족함을 여실히 드러냈다. 그것은 원문 해석의 충실함이 먼저 이루어지면 관습적인 관점에서 벗어나 상호의존의 신학적 해석에로의 개방성을 높여주기 때문이다.

위와 같은 분석 과정을 거쳐 관계지향적 상호의존의 신학에 기초한 설교를 한편 제시하였다. 설교 제시를 통해 제안하는 바는 첫째, 성서 본문 접근에서 제목, 원고 작성 등 전 과정에서 상호의존의 신학적 관점을 염두에 두고 그 방향을 추구해야 하며 둘째, 설교 작성시 관습적이고 전통적인 해석의 관점을 지양해야 함을 인식하고 용어 사용, 예화 선정 등에도 주의를 기울여 간다면 한층 나아진 결과물을 만들어 갈 것이다.

이상과 같이 이 연구는 나의 설교 분석을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혼합 된 교회의 설교 변화를 이루어 건강한 교회 공동체 형성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러나

이것은 설교 변화를 통한 인식 변화만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상호의존의 삶’을 살아감을 통해 이루어 지는 것이다. 이러한 것은 구체적으로 교회의 제도, 기구, 행정, 시설 변화의 실천이 함께 해야 한다. 나의 이 연구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예배 드리는 모든 한국 교회에 기여 할 수 있기를 소망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Chapter I

서론(Introduction)

A. 문제 제기와 목적

모든 교회는 장애인들과 비장애인[1]들이 함께 예배 드린다. 필자가 시무하는 부산중부교회는, 매주일 함께 예배 드리는 인원의 15% 이상이 장애인 교우들이다. 부산중부교회에 부임한 후 왜소증인 여집사님을 심방한 적이 있다. 함께 예배 드리기 전 이런 저런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40 대이고 직장생활을 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타 교회에서 나온 분들의 전도의 손길을 경험하였다고 한다.

그 중에 이 여집사님을 당황케 한 사건이 있었다. 자신을 전도하고자 말을 건넨 한 신앙인이, 자신이 다니는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면 왜소증으로 인해 작은 나의 키를 하나님께서 크게 해 주실 것이라는 것이다. 심방 후에도 이 이야기는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 어떠한 신학적 바탕에 서 있는 신앙인이였기에 이러한 말을 할 수 있었을까? 성도들은 매주 선포되는 말씀들에 의해서 그들의 가치관과, 성서관, 신앙관이 형성된다. 분명 교회 내에서 목회자의 설교, 성경공부 들을 통해 형성된 신앙이 이렇게 무책임한 경우까지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

[1] 장애인이라는 표현의 상대적 표현으로 정상인, 일반인이라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는다. 정상인이라는 표현은 장애인이 비정상이라는 개념이 되기에 장애에 대한 부정적 표현이 된다. 일반인이라는 표현도 그 반대가 일반적이지 않은 특수한 것이 되기에 장애인 상대어로는 부적합하다. 장애인이 아닌 사람을 비장애인이라 칭하는 것이 가정 적합한 표현이다.

성서에는 장애와 질병에 대한 내용들이 상당수 등장한다. 이 본문들이 설교 될 때 일반적으로 죄나 믿음의 문제와 결부되어서, 또는 영적 은유의 표현 등으로 해석된다. 어떤 경우에는 장애인들을 하나님의 축복을 이끌어 내는 섬김과 구제, 봉사의 대상으로만 전락 시키곤 한다. 이러한 목회자의 온전치 못한 신학적 입장에 근거한 설교와 표현으로 인해, 위로와 치유가 필요한 장애인들에게 상처를 주거나 심지어 교회를 떠나게 만들고 있다. 또한 비장애인들이게도 장애에 대하여 왜곡된 신학적 사고를 심어줌으로써 교회 공동체 내의 온전한 관계 형성을 가로 막고 있다.

이 연구는 교회 내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설교에 바른 방향을 제시하려고 한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서로를 분리된 대상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의존적이고, 서로 관계지향적인 온전한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인식할 때에, 교회는 모두를 위한 치유 공동체의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러한 공동체 건설을 위하여 이 논문에서는 관계성에 기초한 상호의존의 신학 관점에 근거한 설교를 장려함으로써,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어울려 예배 드리는 목회 현장의 변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교회를 불러 복음을 전하도록 하셨고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모두 이러한 부르심을 받아 복음을 선포한다.[2] 설교는 이러한 복음 사역의 중요한 부분이며, 설교자가 강단에서 성경을 읽고 설교하는 것은 이러한 교회의 사역에 참여하는 것이다.[3] 즉, 교회 복음 사역의 중요한 부분이 설교자의 설교에 의해 이루어져 가는 것이다.

---

[2] Thomas G. Long, *The Witness of Preaching* 증언하는 설교, trans. 이우제 and 황의무 (서울: CLC, 2005), 19–20.

[3] Long, 20.

설교는 물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며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조절하거나 통제할 수 없다. 그러나, 실제 설교의 내용과 그것에 대한 책임은 설교자에게 있으며 설교자가 무엇을 어떻게 말했는가 하는 것은 청중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4] 아울러 설교자는 청중들이 필요로 하는 것, 그들의 문제, 그 문제의 원인들을 파악하여 이것을 해결하고 회복시키는 적절한 말씀을 전해야 할 책임성을 갖는다.[5]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 설교자는 청중들이 놓여 있는 현장과 삶을 이해하고 여기에 필요한 말씀이 무엇인지, 복음의 어떠한 부분들이 강조되어 선포되어야 하는지를 늘 고민하고 생각하여야 한다.

그렇기에 토마스 롱(Thomas G. Long)은 설교를 통해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를 듣고 믿은 사람들이 모인 것이 신앙 공동체이며 이 공동체도 역시 이것을 근거로 증거하고 가르치는 사역을 동일하게 지속해 나간다고 설명한다.[6] 설교가 단지 설교자 개인에 의해 수행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전체의 신실한 행위라는 것이다.[7] 결국 목회자의 설교는 그 영향력이 매우 크다. 그래서 목회자의 설교는 온전한 신학의 바탕 위에서 추구되어야 한다.

필자가 시무하는 부산 중부교회는 장애인 성도들이 타 교회에 비하여 많은 편이다. 그것은 교회가 지난 30여년간 장애인 자활 센타 운영의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해 왔기 때문이다. 2011년 담임목사로 부임할 당시 교회에서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미리 알려 주지 않았다. 당연히 이에 대해서 준비되어 있지 않았던 필자는 이런 상황이 당황스러웠고 필자의 행동이나 어법, 설교를 점검할 새도 없이 시간이 지나갔다.

---

[4] Long, 45-46.
[5] Long, 50.
[6] Long, 81.
[7] Long.

장애인들과의 만남이 빈번해 지는 가운데, 센타에서의 내 행동이나 말투, 교회에서의 사역들 중에 무언가 서로 어색해하고 부자연스러움을 자주 느껴갈 무렵, 필자는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에서 갈등, 치유, 변화를 위한 실천 신학 과목들을 수강하였다. 그 중에서 특히 Kathy Black 교수와 HyeRan Kim-Cragg 교수의 설교와 예배를 통한 치유와 변화(Healing and Transformation through Preaching and Worship) 과목은 필자 자신의 행동과 말투, 특히 목회자로서의 설교를 점검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 중에서도 설교와 장애인에 대한 내용들과 상호의존의 신학에 대한 내용들을 통해 실제적인 목회의 변혁을 이룰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 그렇기에 클레어몬트 신학교의 수업 과목들, 특히 "설교와 예배를 통한 치유와 변화"(Healing and Transformation through Preaching and Worship) 과목은 이 연구의 출발점이 된다. 이 연구의 자료로 분석된 설교들은 이 과목을 수강하기 전의 설교들이며 상호의존의 신학에 바탕을 두고 결과로서 제시하는 설교문은 과목을 수강한 뒤 이 연구를 진행하며 작성된 설교이다.

이에 따라 이 연구는 지난 4 년간 부산 중부교회에서 행한 설교 중 장애와 질병에 대한 본문을 포함한 설교를 선택하여 분석할 것이다. 그리고 그 내용 중 장애인에게 상처를 준 내용이나 그러한 표현 또는 부적합하게 보이는 접근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다. 이것은 비장애인에게도 동일하게 온전치 못한 신학적 사고를 갖게끔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이 연구는 교회내에서 장애인 인식과 사고 구조 개선에 변화를 가져오기 위한 노력이다. 이 노력은 상호의존의 신학을 바탕으로 새로이 쓰여지는 설교 제시를 통해

이루어 질 것이다. 이울러 이 연구의 제한성은 지난 4 년간의 정해진 기간과 장애와 질병을 내용으로 담고 있는 성서 본문, 부산 중부교회라는 청중의 제한이 있음을 밝혀둔다.

한국교회에서 자주 설교 되는 성서본문들이 복음서의 질병과 장애를 내용으로 하는 치유 이야기이다. 이 이야기들은 하나님의 권능과 예수님의 치유가 어우러진 말씀으로 성도들에게 큰 영향을 끼치는 본문들이다. 그러나 질병과 장애를 다루고 있는 본문들이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설교 될 때, 듣는 이에게 큰 상처와 부적절한 신학적 사고를 형성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장애와 질병에 관한 것을 죄의 문제와 결부시키거나 믿음의 대소 문제로 연결시켜 행해지는 설교이다.

이렇게 교회 내에서 깊은 통찰 없이 관습적으로 이루어진 신학적 접근이나 2 천여년전 유대 사회의 통념을 걸러내지 않고 이루어지는 설교는, 장애인 성도들에게는 깊은 절망과 상처를, 비장애인 성도들에게는 부적절한 신학적 사고와 종교적 굴레를 씌우는 원인이 된다. 그래서 이 연구는 깊은 성찰과 생각 없이 장애나 질병이 설교의 소재나 도구로 사용 되는 것을 짚어내고 개선점을 제시하여 교회 공동체에 변화를 제시할 것이다. 이를 위해 관계성에 기초한 상호의존의 신학을 기반으로 이루어진 설교를 제시하여 장애인들과 비장애인들이 공존하는 교회 공동체를 향한 새로운 설교의 방향을 제시할 것이다.

이론적인 부분으로써 신학적 접근만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장애인, 비장애인이 함께 있는 공동체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설교를 제시하여 더욱 실용적이고 실제적이라고 하겠다. 이론적인 면과 실천적인 면을 모두 다루기에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있는 일반적인 교회 목회자의 설교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고 기대한다.

이 연구의 1 차적 대상은 연구자 자신이다. 연구자 자신이 한울 장애인 자활 센타의 운영위원장 겸 이사를 맡고 있으며 회중의 15% 가량이 장애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부산중부교회의 담임목사로서 매주 설교하고 있기 때문이다. 필자의 설교 분석을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 혼합 교회의 설교 변화를 꾀하고자 한다. 그렇기에 이 프로젝트의 제목이 "상호의존의 신학과 장애인을 위한 변혁적 설교"이다. 여기에서 '장애인을 위한' 이라는 표현은 '비장애인을 위한' 이라는 뜻도 함께 포함하고 있다.

다음으로 이 연구의 주된 청중은 부산 중부교회의 성도들이다. 60 여년의 역사 가운데 30 여년이 넘게 장애인 자활 센타와 함께 해 왔으며 여타의 교회보다 장애인 교인 비중이 높다. 특별히 한울의 날과 장애인 주일, 한울 총회 주일, 한 달에 한번 자활 센터의 장애인들이 모이는 주일에는 평소보다 두 배 이상의 장애인들이 예배에 참석하고 있다. 장애인 성도들과 비장애인 성도들 모두가 주된 청중이다.

부차적인 청중으로는 한국교회의 목회자들이다. 어느 교회나 비율의 차이가 있을 뿐 장애인 성도들은 존재한다. 그렇기에 대부분의 교회들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예배드리는 교회인 것이다. 이 연구가 목회자들이 가진 장애인들에 대한 부적절한 신학적 사고와 사회적 통념을 일깨우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고 이 연구를 통해 제시된 방향이 목회 현장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기를 기대한다.

B. 사용할 용어들의 정의

1. 장애인, 비장애인

이범성에 따르면 1999 년 발효한 한국 개정 장애인복지법에 장애인이란 개인의 신체 혹은 정신적 결함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신체적인 불편만이 아니라 그에 따른 경제적인 빈곤과 사회적 소외감을 같이 인식하여 표현하고 있다.[8] 장애인에 대한 용어는 비장애인에 대하여 상대적인 표현이다. 그 조건이나 기준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사회 상황이 변화 되면 장애인에 대한 개념과 인식도 변화 될 수 있다. 또한 장애인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 일반인이나 정상인이라는 표현은 사용하지 아니하고 비장애인이라는 표현을 쓴다.

장애인에 대한 표현을 disability 라기 보다는 differently abled person 으로서의 개념정의를 시도하고 있기도 하다. 즉 능력의 부족이나 결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능력을 소유한 자라는 표현이다. 최근에는 physically challenged (신체적으로 도전 받는 자) 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이 논문에서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persons with disabilities, people with disabilities (PWD)의 의미로서 장애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겠다. 이 표현은 장애인이라는 표현 중에서도 장애를 나타내는 단어로 사람을 규정 짓는 표현이 아니라 (예를 들어, the deaf, the blind) 사람이라는 표현이 먼저 나오고 뒤에 그의 특성이 서술되기에 그러하다.

하나님은 장애인을 창조하지 않았다. 사람을 각각 제각기 다른 모양으로 창조하였을

---

[8] 이범성, "장애인신학과 선교," in *장애인신학,* ed. 대한예수교장로회 사회봉사부 장애인신학준비위원회 (서울: 한국장로교 출판사, 2015), 184.

뿐이다. 존중 받아야 하는 '다름'이 있을 뿐이다.[9] 이 논문에서의 장애인이라는 표현은 또한 위에 서술한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표현을 참고하면서 하나님의 창조 안에서 다르게 창조된 사람들 중에, 사회적 조건에 의해서 장벽을 경험하는 것을 장애, 그것을 경험하는 사람을 장애인이라 의미한다.[10]

2. 장애인과 비장애인 혼합 교회

우리나라 등록 장애인은 2011 년 장애인 조사 실태에 따르면 268 만명이다. 그러나, 인구의 10%가 장애인이라는 세계보건기구의 통계를 생각하면 약 460 만명으로 추산된다.[11] 10 명중 1 명이 장애인이라는 것이다. 물론 장애인 복음화 율은 인구대비 기독교인의 비율보다 현격히 떨어지지만 어느 교회나 장애인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기에 이 연구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 혼합교회라 하면 위와 같은 근거에서 거의 모든 교회가 해당 되며, 혹시 장애인이 존재하지 않는 교회가 있다 하더라도 이 논문의 목적은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에게 해당되므로 동일하게 적용된다.

3. 관계

관계란 하나님과 나의 관계, 나와 이웃과의 관계, 사람과의 원할한 교류, 즉 대인관계를 의미한다.[12]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와의 바른 관계인 것처럼 설교를 통해 목회자는 성도들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도록 한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

[9] 이계윤, "장애인신학의 정의와 이해," in *장애인신학*, ed. 대한예수교장로회 사회봉사부 장애인신학준비위원회 (서울: 한국장로교 출판사, 2015), 21-22.

[10] 이계윤, "장애인신학의 정의와 이해," 22.

[11] 황홍렬, "장애인선교신학 정립을 위한 한 시도", in *장애인신학*, ed. 대한예수교장로회 사회봉사부 장애인신학준비위원회 (서울: 한국장로교 출판사, 2015), 213.

[12] 김영선, *관계신학* (서울: 대한 기독교서회, 2012), 72.

맺는 것은 이웃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을 포함하며 이웃과의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모형이다. 실제로 목회와 설교는 하나님과 성도들과 사회와 문화를 포함한 모든 것과의 관계를 이해하고 이에 대한 길을 제시하고 그 길을 인도하는 것이다.[13]

4. 상호의존

상호(相互)란 상대가 되는 이쪽과 저쪽 모두를 의미하고 의존(依存)이란 다른 것에 의지하여 존재한다는 뜻이다. 상호의존(相互依存)의 관계란 여러 요소가 서로 맞물려 각기 다른 요소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결과가 되기도 하는 관계를 뜻한다. 이 논문에서 쓰이는 상호의존의 관계, 상호의존의 신학에서의 상호의존 역시 서로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것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누가 누구에게 일방적인 영향을 끼치거나 누구는 '주는 자'로, 누구는 '받는 자'로의 관계가 아님을 나타낸다. 오히려 서로가 있음으로 인해서 존재할 수 있고 서로의 온전성을 높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

[13] 김영선, 73.

Chapter II

논지에 대한 검토

A. 장애인에 대한 한국교회의 일반적 상황

1999 년 한국 개정 장애인 복지법에 따르면 장애인이란 개인의 신체 혹은 정신적 결함으로 일상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다.[14] 일반적으로 장애인이란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15] 이에 더 나아가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장애인은 신체적인 부분 만이 아니라 이에 동반되는 경제적인 어려움과 사회적 소외감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약자' 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16] 이것을 전제한다면 교회와 장애인과의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지는 분명하다.

한국에서 장애인의 수는 인구의 10% 정도로 추산한다. 그렇다면 인구비례로 보아 한국 교회에는 10% 이상의 장애인이 당연히 있어야 될 것으로 여겨지지만 현실은 2013 년 기준으로 6%에 지나지 않는다.[17] 세계교회협의회의 "장애인이 없는 교회는 장애 교회다" "장애인 없이는 교회가 결코 온전 할 수 없다"는 표현처럼 교회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야기 한다면 일반적인 비율보다 더 많은 비율의 장애인들이 교회 내에 함께 공존해야 한다.[18] 그러나, 교회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 부족과 장애인과 함께 하는 목회를 어찌해야 할지를

---

[14] 이범성, 184.
[15] 최대열, "교회는 장애인의 삶의 자리다," *목회와 신학* vol. 274, no 4 (2012): 169.
[16] 이범성, 184.
[17] 최대열, "한국 교회 장애인 사역의 진단과 처방," *목회와 신학* vol. 286, no 4 (2013): 148.
[18] 최대열, " 교회는 장애인의 삶의 자리다," 170.

모르고, 준비하지 않거나 등한시하여 더 적은 비율에 머물게 된 것은 교회의 무지요 이것은 곧 교회의 불온전함이다.

장애인에 관한 문제에 다가 갈수록 장애인 문제는 개인적 문제가 아니라 사회 공동체적 문제라는 인식에 공감하고 있다. 개인적 손상이나 상실을 넘어서 사회적 인식과 시설, 제도의 문제로 확대되는데 이 부분이 교회에서도 동일한 문제가 된다. 곧, 교회 공동체의 인식과 신학적 사고, 교회의 시설, 교회의 제도 등과도 관련된다.

최대열은 한국사회 전반에 걸쳐 장애인에 대한 인권과 복지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한국교회의 장애인 사역도 갈수록 넓어지며 이에 따라 장애인 복음화 율도 높아져 가고 있다고 말한다.[19] 그리고, 한국교회의 장애인 사역의 유형이 다음과 같이 전개되어 진행되어 왔다고 분류하고 있다. 첫째 유형은 물질 후원유형이다. 교회가 직접 감당하기에 어려워 장애인 선교회, 시설, 가정에 후원하는 형태이다. 둘째 유형은 자원봉사유형이다. 현장에서 실제적인 친교와 봉사를 제공하는 형태이다. 셋째 유형은 장애인 교회/부서 유형이다. 이 유형은 교회 내에서 장애인 부서를 따로 둔다는 배려의 장점이 있지만 장애인들을 분리시키는 위험이 있다. 넷째 유형은 복지 유형이다. 복지관이나 시설을 직접 설립하거나 수탁 운영하는 형태이다. 이 모든 형태는 각 교회의 있는 형편에 따라 최선을 다하여 진행되어 왔기에 각 교회의 사역에 대해 서로 인정해주고 존중해 주어야 한다.[20]

그러나, 최대열은 여기서 몇 가지를 짚고 있다. 첫째, 장애인 사역에 관한 일을 장애인 교회나 부서, 담당 교역자에게 맡겨둔 채, 교회 공동체 모두가 공유하는 일에는 부족하다는

---

[19] 최대열, " 한국 교회 장애인 사역의 진단과 처방," 149.
[20] 최대열, 149-50.

것이고 둘째, 교회가 장애인 사역을 함에 있어서 장애인을 선교의 대상으로만 생각하고 동역자로 생각하는 것에 부족하다는 것이다.[21] 이러한 점들은 교회가 장애인 사역을 함에 있어서 장애인들을 수동적 대상으로만 여기게 되고 이것은 결국 교회 내에서도 장애 차별을 발생케한다.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교회는 비장애인에게 하는 것과 동일한 차원에서 장애인에게도 행하면 된다. 물론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도움을 주어야 한다. 그러나 여느 누구를 대하는 것처럼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대하는 것이다. 교회에서 어느 누구에게나 사랑하고 겸손하게 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대하면 된다. 요청하는 부분은 제공해 주면 되고, 불편하다고 여기는 부분은 먼저 생각해서 배려해주면 되는 것이다. 장애인 사역과 목회를 특수한 분야로 생각하기보다는 일반적인 사역 가운데 하나로 여기면 된다. 이것은 장애인 사역이 특수한 몇 개 교회의 사역이 아니라 모든 교회의 사역이기 때문이다.

B. 장애와 질병에 대한 성서 본문의 전통적 해석

성서 전체에 결쳐서 장애와 질병에 대한 기록은 상당히 많은 편이다. 대체적인 숫자는 이계윤에 의하면 신구약 전체에 장애인에 대한 기록은 구약에 89 회, 신약에 74 회 총 163 회가 나타나는데, 구약에서 시각장애 47 회, 지체장애가 27 회 청각장애가 15 회 나타나며, 신약에 시각장애 33 회 지체장애 32 회 청각장애가 9 회 나타난다고 주장한다.[22] 이어 성서에 언급된 장애의 원인별 사례를 살펴보면 신체적이며 정신적 장애, 즉 육체적 장애의 사례는 노화로 인한 장애, 만성적 질병으로 인한 장애, 우연한 사고로 인한 장애,

---

[21] 최대열, 151.

[22] 이계윤, *장애인 선교의 이론과 실제* (안양: 한국특수교육연구소 출판부, 1996), 55–56.

선천적 장애, 전쟁으로 인한 장애, 하나님의 징벌로 인한 장애, 귀신에 의한 장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한 장애, 그리고 상징적 의미로서의 장애가 있다고 말한다.[23] 성서에서 이렇게 많은 숫자의 장애인들이 언급되고 신구약 전체에 걸쳐서 다양한 원인들을 서술하고 있는 것은 결국 장애 라는 것이 인간의 삶의 여정에서, 특별한 부분이 아니라 일반적인 부분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장애인도 특별함이 아닌 다양한 다른 모습 중의 하나 일뿐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캐시 블랙(Kathy Black)은 설교자들이 이러한 성경의 본문들을 가지고 설교 할 때에 장애인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그래서 천사와 성인들이라고 칭송하거나 이와 반대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거나 악마와 동일시하여 설교한다고 말한다.[24] 그리고 이러한 상반된 두 가지 이미지의 설교는 장애인들과 비장애인들을 분리시킨다고 하고 있다. 장애인들을 천사들이라고 생각할 경우에는 장애인들이 힘들게 마주하고 있는 삶의 실상을 비장애인들이 전혀 생각지 못하게 만들며, 저주받은 자로 여긴다면 누가 장애인들 가까이 가려고 하겠느냐는 것이다. 결국 이 두 가지 이미지로 설교하는 것은 이러한 모든 일들이 우리로서는 어찌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어난 일로 치부해 버린다는 것이다.[25] 또 설교자들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종종 어떤 죄 때문에 그렇게 되었거나 믿음이

---

[23] 이계윤, 56-58.

[24] Kathy Black, *A Healing Homiletic 치유설교학*, trans. 이승진 (서울: CLC, 1996), 29-30.

[25] Black, 31.

부족하거나 때로는 귀신이나 악령에 들렸을 것으로 단정짓기도 하는데, 그럴듯하게 보이는 죄와 장애라는 이러한 상관관계는 교회 속에 확산된 왜곡된 관점이라고 주장한다.[26]

이러한 관점이 결국은, 장애와 질병에 대한 교회의 전통적인 관점으로 굳어지게 되었는데 캐시 블랙은 장애와 질병에 대한 교회의 전통적인 관점을 다음과 같이 나누어 설명한다: 부모나 나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형벌을 받았다; 믿음의 연단을 위한 과정이다; 성품을 계발하기 위한 기회로 주어졌다; 하나님의 권능을 증거하기 위함이다; 우리의 구원을 위한 고난이다; 하나님의 신비로운 전능하심을 보이기 위함이다 라는 것이다.[27]

여기에 김홍덕은 또 비장애인들을 은혜와 교훈을 주는 수단으로 하나님의 특별한 메신저나 천사로서 신비한 능력을 가진 존재로 생각하여 장애가 오히려 장애인에게 복이 된다는 관점을 추가한다.[28] 여기서 장애에 관하여 조금 더 발전한 관점은 질병과 장애를 영적 은유의 관점으로 바라보거나 성서 해석상의 또 다른 목표를 위한 입장에서 해석하는 것이다.[29] 이러한 관점들은 결국 장애인들은 불쌍하고 돌보아 주어야 하는 존재로, 또 비장애인들에게 가르침이 되는 존재이니 존중하자는 것으로, 장애인들의 그 모습과 상황이 교회에 무언가 교훈과 유익이 된다는 식의 사고로 이어졌다.[30]

장애에 대해 낸시 아이스란드(Nancy. L. Eiesland) 도 전통적인 성경적, 신학적 관점으로서 세가지를 정리하고 있다. 첫째, 죄와 장애의 융합의 관점에서, 둘째, 고결한

[26] Black, 30.

[27] Black, 31-44.

[28] 김홍덕, *장애신학* (대전: 대장간, 2010), 38.

[29] Black, 19.

[30] 김홍덕, 39.

고난의 시각에서, 셋째, 차별적 자선의 입장에서 접근한다는 것이다.[31] 그리고, 아이스란드는 이것이 기독교 공동체로 받아들여지기를 원하는 장애인들을 가로막는 신학적 장애물이라고 주장한다.[32]

위 학자들의 견해를 종합해 보았을 때, 장애와 질병에 대한 교회의 전통적이고 관습적인 관점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대부분의 관점이 이 두 가지와 연결되어 보이기 때문이다. 하나는 질병과 장애의 문제를 죄와 연결 시킨 관점이다. 부모나 나의 죄로 인하여 이러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고 죄 사함을 받으면 치유된다는 것이다. 또 하나는 믿음의 문제와 연결 시키는 관점이다. 믿음이 적기 때문에 믿음의 연단을 위한 것이고, 고난을 이겨내는 적극적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비로운 권능을 이끌어 내어 치유 받는 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최대열은 죄 사함의 문제는 장애인만이 받아야 할 은혜가 아니라 모든 인간이 받아야 할 은혜이고, 복음서에서 보이는 예수의 죄 사함은 메시야로서의 권세를 나타내기 위하여 치유 선언 대신에 죄 사함의 선언을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한다.[33] 믿음의 문제와 연결 시키는 관점에 대해서도 마가복음에 나타나는 17 가지의 치유 기사 중 믿음(명사)과 믿다(동사)와 연관된 치유 기사는 4 가지뿐임을 지적하고 있다. 아울러 4 복음서에 나타나는 예수의 치유는 예수의 메시아 됨을 강조하는 것이지 믿음에 대한 특별한

---

[31] Nancy. L. Eiesland, *The Disabled God: Toward a Liberatory Theology of Disability* (Nashville: Abingdon Press,1994), 74.

[32] Eiesland, 74.

[33] 최대열, 172.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34] 치유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며 치유 기사들 중 일부에서 병자나 장애인 당사자의 믿음, 또는 제 3 자의 믿음이 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본문이 있지만 믿음과 무관한 치유 기사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부분적이고 특수한 경우를, 전체적이고 보편적이라고 여기는 것은 곤란하다고 주장한다.[35]

장애인이라고 해서 비장애인들과 달리 해석 되어야 할 성경적 근거는 없다. 그러나 장애인들은, 위와 같은 왜곡된 관점 때문에 교회에 가면 값싼 동정을 받는 곳, 교회에 가면 무언가 가슴 뭉클한 간증이라도 해야 하는 곳 같은 압박감을 받는 곳이 되었다고 김홍덕은 말한다.[36] 또한 이러한 관점들이 교회 내 비장애인들로 하여금 장애인들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고 우리는 그들을 돕고 무언가를 주어야 하며 장애인들은 그저 받는 사람들이라는 비 상호의존적인 일방적 관계로 고착 시켜 버리고 만다.

이와 같은 모습들이 목회 현장에서 그대로 투영 되었을 때, 장애를 가진 이들은 교회공동체에서 무시되거나 배제되어 주체로 받아들여지지 못한다. 또한 비장애인들도 장애인들과의 관계가 어색한 채로 남아 있게 된다. 이것은 온전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아니다. 비록 성경에는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구절들도 나오지만 이러한 태도들은 당시의 문화나 종교와 관련이 있기 마련이다. 성경의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태도들은 오늘 우리의 상황에서 재해석 해주어야 한다. 이러한 구절들에 대한 신학적 해석에 의하면 반드시

---

[34] 최대열, 160.

[35] 최대열, 164-65.

[36] 김홍덕, 39.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다.[37] 그렇기에 이러한 왜곡된 관점은 새롭게 해석되어야 한다. 특히

장애와 질병이 상처와 억압으로 해석 되는 표현들은 새로운 관점에서 해석되어야 한다.

C. 문헌 자료의 평론적 검토

1975 년 WCC 5 차 총회(나이로비)는 신체장애자들과 하나님의 가족의

전체성이라는 소제목의 보고서를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 교회의 하나됨은 '장애자들'과 '정상인들 모두를 포함한다.[38]' 자체 내에서 진정으로 하나가 되기를 모색하며, 나아가 다른 교회들과의 하나됨을 향해 전진하려는 교회는 모든 사람들에게 개방되어야 한다. 그러나, 신체 건강한 신도는 그들의 태도와 적극적 행동에 대한 강조를 통해 정신 장애자나 신체 장애자를 소외 시키거나 때로는 배제한다. 장애자들은 그리스도의 몸과 인류 가족에 전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없어서는 안 될 지체로서라기보다는 봉사를 받아야만 하는 약자로서 취급되고 있다. 장애자들이 기여해야만 하는 특별한 공헌은 무시되고 있다. 이 문제는 전세계적인 문제로서 신체장애자의 수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교회가 만약 계속해서 장애자들의 사회적 고립을 방치해두고 그들이 교회 생활에 전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거부한다면 ‘그리스도안에 계시된 완전한 인간성’을 실현 할 수 없으며, 또 인간의 상호의존성을 증거할 수도 없고 다양함 속의 하나됨도 이룰 수 없다. 이런 형제 자매들이 단순히 동정적인 자선의 대상으로 취급되는 곳에서 하나님의 가족의 하나됨은 장애를 입게 된다. 그들이 배제되는 속에서 하나됨은 깨어진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토록 많은 동료인간들의 삶을 왜곡하고 불구로 만드는 요인의 정체를 파악하며 또 그것에 맞서 힘있게 일할 수 있는 의지를 어떻게 우리 속에 창조할 수 있겠는가?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장애자들을 통해서 확대해 가시는 증거에 어떻게 개방적일 수 있겠는가?[39]

---

[37] 황홍렬, “ 장애인 선교신학 정립을 위한 한 시도,” in *장애인신학,* ed. 대한예수교장로회 사회봉사부 장애인신학준비위원회 (서울: 한국장로교 출판사, 2015), 217.

[38] 1975 년 보고서이며 1993 년 번역 출판된 표현임을 참고해야 한다.

[39] W.C.C. Geneva, ed. *The Section Reports of the W.C.C. 세계교회협의회 역대 총회 종합 보고서,* trans 이형기 (서울:한국장로교출판사, 1993), 343.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장애인들이 배제 될 수 없으며, 장애인들의 참여 없이는 교회가 완전한 정체성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미 장애인들은 그리스도의 공동체에 전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또한 공동체에 특별한 공헌으로 기여하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출애굽기 4:11 절을 질병과 장애에 대해 생각할 때 늘 제기되는 주장이 있다.[40] 하나님이 만물의 창조주이고 지금도 섭리하시는 분이라면, 장애는 하나님의 책임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장애를 하나님이 직접 만들지 않았더라도 장애를 '허락'하셨고, 그 장애를 통해 섭리하시는 분이라는 것이다. 또 한 가지는 장애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배치되는 사탄의 작품이라는 주장이다. 이런 주장은 출발점부터가 어긋났다. 성경을 기록할 당시의 장애의 정의가 우리가 가지는 장애의 정의와 같지 않고 당시 문화가 이해하는 장애도 현대적 개념의 이해와도 다르기 때문이다.[41] 본문은 그저 하나님이 장애인을 창조하셨다는 것일 뿐 장애에 대한 어떤 정의도 내리지 않았다. 그저 장애인도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장애의 종류나 가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각기 다르게 창조하셨다는 사람의 존재적 창조에 대한 표현이다.[42] 즉, 창조의 섭리는 다름의 섭리, 다양성의 섭리이다. 모세가 자신의 장애를 핑계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하자 장애인도 하나님이 창조했고 불러 사용하시는데 장애를 가지고 왜 핑계를 대느냐고 모세를 꾸짖는 장면이다. 그 이면에는 장애인, 비장애인을 아무런 구별 없이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이신 것이라고 김홍덕은 주장한다.[43]

[40]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여호와가 아니냐"(개역개정).

[41] 김홍덕, 64.

[42] 김홍덕, 64.

[43] 김홍덕, 65.

자신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시고 “심히 좋았다” 라고 하신 말씀에는 다르게 지음을 받은 모든 피조물들에게도 동일한 적용이다. 다르게 지음을 받았다고 해서, 즉 신체적 손상이나 기능 손실로 입은 장애가 하나님의 형상에서 모자라거나 축소되어지지 않는다.[44] 하나님의 형상은 몸의 구조나 기능에 따른 것이 아닌 존재적 본질이기 때문이다. [45]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정상과 비정상에 대한 사고는 사회의 생산성과, 효율성, 효용성을 강조하며 표현된 것이다. 몸의 구조와 기능에 문제가 없고 생산을 많이 하는 사람이 가치가 높은 것이 아니라, 사람의 가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성립되는 것이다. 김홍덕은 하나님과의 관계 마저도 생산성과 물량으로 접근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46] 그렇기에 장애라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에 영향을 끼치지 않으며 장애인 역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존재이다.

또한 김홍덕은 아이슬란드가 예수를 장애 입은 하나님으로 표현함을 설명하면서 예수가 십자가에서 손상된 손과 발, 창에 찔린 허리를 그대로 안은 채 부활하셨고 장애를 제거하지 않았음을 지적한다.[47] 이것은 장애를 죄의 결과로 바라보는 사회적 통념을 깨뜨리는 것이며 장애와 손상을 입은 몸도 하나님의 형상에 온전히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48]

---

[44] 김홍덕, 65.

[45] 김홍덕, 65.

[46] 김홍덕, 67.

[47] 김홍덕, 228.

[48] 김홍덕.

아이슬란드의 장애 하나님은 장애가 개인적 죄의 결과라는 개념을 부인하며 오히려 장애에 대한 불의가 죄라 말한다.[49] 몸은 원천적으로 죄의 결과물이 될 수 없고, 장애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형상에 참여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는다.[50] 죄가 장애를 만든다는 사고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방해물이 되는 사고 방식이다.[51]

이러한 면에서 장애란 단순히 장애인만의 관심이 아닌 비장애인을 포함하여 모든 사람의 관심이며 그 신학적 논의와 사역은 결국 모두를 위한 것이다. 이 모두는 함께 어울려 사는 존재로 창조되었고 서로 기대어 채워가며 사랑하고 서로 돕는, '누구 없이도'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닌 '누구와 함께' 하는 의존적인 존재이다.[52] 장애인에 대한 상호의존적인 접근은 하나님 안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다.[53]

여기에 대해서 블랙은 그의 저서 *치유 설교학*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서로를 의존한다는 겸손한 자세가 필요하며 그것은 이들 각자가 있는 그대로의 존재로 공동체에 기여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54] 그리고 이것을 위해 상호의존의 신학을 제안하고 있다. 상호의존의 신학은 우리가 하나님과 다른 지체에 의존해야 함을 강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역시 우리와 동역하고 계심을 강조한다.[55] 이 세상의 모든 생명체가 서로 유기적으로 관계

[49] Eiesland, 101.
[50] Eiesland.
[51] Eiesland.
[52] 최대열, "모든 사람을 위한 장애인 신학," 35.
[53] 최대열, 37.
[54] Black, 54.
[55] Black, 55.

맺고 있음을 일깨워 주는 것이다.[56] 그렇기에 장애가 치료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치유와 회복은 일어나기에, 하나님은 그 안에 임재하고 계시다는 것이다.[57] 그리고 그 공동체 안에서 지체들이 서로를 의지하며 도움을 주고 받는 손길들을 통해 우리의 삶에 오늘도 변화를 가져다 주신다고 말한다.[58]

이러한 상호의존은 관계문화이론에서 주요 개념으로 삼고 있는 상호관계와도 동일한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권진숙은 그의 저서 *관계 문화 이론*에서 상호관계란 서로의 성장을 촉진하는 관계로서 또 서로가 관계를 가질 때 일정한 선에서 서로가 돕기 위해서 열려있는 관계로 정의 하고 있다.[59] 또 상호관계는 관계적 능력을 갖는 것을 말하는데 이 능력이란 관계 가운데서 다른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능력, 관계를 변화 시킬 수 있는 능력,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의 행복을 만들어 낼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60]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힘을 과시하거나 자신의 영향력을 타인에게 미치려고만 하는 것은 상호관계라 할 수 없다.[61] 교수가 가르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을 통해서 배우는 것처럼 자신도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개방되어 있어야 상호관계가 성립한다.[62] 이것을 장애인과 비장애인 혼합 교회에 적용시킨다면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

[56] Black.
[57] Black.
[58] Black.
[59] 권진숙, *관계 문화 이론* (서울: 신앙과 지성사, 2013), 49.
[60] 권진숙, 50.
[61] 권진숙, 52.
[62] 권진숙, 51-52.

주기만 하거나 받기만 하는 관계로 이해하는 것을 넘어설 수 있다. 서로 주고 받는 내용물이 다를 뿐 서로에게 주고 있고 서로에게 받고 있으며 서로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상호관계 및 상호의존성은 편안한 의자에 앉아서 알고 가르치고 배우는 것으로 이루어 지는 것이 아니다.[63] 하루 아침에 또 단번에 어떻게 상호의존적으로 살 수 있는가를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우리의 몸과 마음이 알고 기억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그러한 삶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64] 즉 상호의존적인 삶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사용하여 습관이 되도록 일상의 훈련이 필요한 육체적이며 영적인 작업의 결과물이다.[65]

---

[63] HyeRan Kim-Cragg, "A Christian Feminist Theological Reflection on Economy of Life" *The Ecumenical Review* volume 67, no. 2 (July 2015): 175, accessed November 10, 2015, doi: 10.1111/erev.12148.

[64] Kim-Cragg, 175.

[65] Kim-Cragg, 176.

Chapter III

관계지향적 상호의존의 신학

이 연구를 위해 필자는 상호의존의 신학을 제시한다. 이 상호의존의 신학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분리하지 않고 서로 의존관계에 있음을 보여 주어 교회공동체의 온전성을 추구하는 바탕이 되기 때문이다. 또한 장애와 질병을 포함하는 성서 본문 해석의 바탕이, 관계 지향적인 상호의존의 신학이 되어야 하며 이 신학 사상을 기초로 설교 제시를 하였다. 이 장에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바른 관계 설정을 위해 관계신학에 대해서 먼저 다룰 것이며 이어서 상호의존의 신학에 대해서 기술할 것이다.

A. 관계신학

모든 생명은 관계를 필요로 하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관계 없이 존재하는 것은 없다. 관계는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의 중심적인 것이며 세상의 진리뿐만이 아니라 기독교의 진리들도 관계를 통해 이해되고 해석될 수 있다.[66] 레너드 스윗(Leonard Sweet)도 기독교의 기초는 하나님과 맺는 관계이며 관계에 기초한 교회만이 하나님과 및 피차간의 소통과 신앙 여정에 힘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한다.[67] 이렇게 관계를 토대로 하는 신학이 관계신학이다

관계신학은 모든 신학적 진리를 '관계'라는 관점에서 이해하고 해석하는 신학이다. 하나님, 인간, 세계, 신앙, 교회, 성만찬 등의 모든 신앙의 내용을 관계라는 관점에서 해석한다.[68] 관계 신학은 신학을 인간과 세계와 관계를 갖고 계시는 하나님에 관한 진리라고

---

[66] 김영선, 48.

[67] Leonard Sweet, *Out of the Question..Into the Mystery 관계의 영성*, trans. 윤종석 (서울: IVP, 2011), 43.

[68] 김영선, 50.

정의함으로 시작하는데 그렇기에 복음은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게 하시는 선물이다.[69]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우리가 하나님과 타인들, 그리고 세상과 새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게 하시러 오셨다.[70] 즉 관계신학에서 보면 복음의 기쁜 소식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는 것으로서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관계이다.[71]

이러한 관계신학의 관점에서 믿음은 신념이 아니라 관계이며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어떻게 형성하는가 하는 것이 믿음이다.[72] 공동체에서 믿음의 식구가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다는 것이고 믿음의 실천은 관계를 맺어 나아가는 것이다.[73] 또한 관계신학의 관점에 입각한 설교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하고, 그 관계를 강화하거나 돈독히 하는 것으로 이해한다.[74] 우리는 이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하나님과 이웃, 그리고 세상과의 관계를 맺고 그 관계를 유지시키고 돕는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게 한다.[75] 그렇기에 장애인과 비장애인 혼합교회에서의 설교는 이 둘 간의 관계를 바르게 설정해 주는 복음의 선포이다.[76]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관계가

---

[69] 김영선, 50.

[70] Sweet, 55.

[71] 김영선, 51.

[72] 김영선, 55-58.

[73] Sweet, 61.

[74] 김영선, 59.

[75] 김영선.

[76] 이외에도 김영선은 신앙의 내용들을 관계신학적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예배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관계의 장이며 그 관계를 시작하고 지속하고 강화해 가는 작업이다. 기도는 진정한 관계 형성을 추구하는 은총의 수단이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성 안에서 이루어지는 소통이며, 쌍방통행이다. 찬송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설정되고 소통이 전제되는 노래이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것이다. 회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다. 영성은 관계성을 향한 개방성이다. 목회는 하나님과 성도들, 그리고 사회와 문화에 대한 모든 것과의 관계를 이해하고 이에 대한 삶의 길을 제시하고 그 길을 인도하는 것이다.

하나님과의 이 관계만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과의 관계로 확장 된다는 것이다. 이것이 비장애인과 장애인 혼합교회에서 관계신학이 중요한 이유이다. 교회 내에서 장애인들과 비장애인들이 무엇을 서로간에 주고 받는가 하는 것보다 우선시 되는 것은 이 둘이 어떤 관계에 놓여 있는가 하는 것이다.

그리고 성도들 간의 '관계'를 생각해 볼 때 관계 문화 이론에서는 관계가 가진 내적 의미를 '성장을 촉진 시켜 주는 관계'로 이해한다. 관계가 있다고 모두가 성장을 촉진하는 것도 아니고 건강하지 않은 관계도 존재하지만 생산적인 의미에서 성장을 촉진하는 관계를 의미한다.[77] 이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 '상호관계'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권진숙은 상호관계의 요소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서술하고 있다.

> 관계의 조화, 관계 속에서 느낄 수 있는 따뜻한 지지, 긍정적인 기분을 가지고 다른 사람과 관계하기, 관계 속에서 서로가 가지고 있는 공통의 주제들을 서로 돕는 자세를 가질 수 있는 것이 관계 문화이론에서 말하는 상호관계의 요소들이라 할 수 있다. 상호간의 만남이 조화를 이루고, 서로가 만남 속에서 따뜻함을 느낄 수 있고, 다른 사람을 만날 때에 긍정적인 기분을 가지고 만나려고 하는 태도를 잃지 않으며 상대방과의 관계를 시작하고 유지하려는 태도가 중요하다. 그리고 서로가 관계를 가질 때에 성취하려고 하는 목표에 대해서 일정한 선에서 서로 돕기 위해서 열려있는 자세로 서로의 목표를 이루려고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바로 이런 요소들을 가지고 관계를 갖는 것을 상호 관계를 갖는다고 하는 것이다. 이런 상호 관계의 핵심적인 요소는 바로 "만남(encounter)"과 "적극적인 과정(active process)"이며, 그 핵심 적인 가치는 "존중(respect)"이다.[78]

위의 표현을 빌리자면 장애인과 비장애인 혼합교회에서 관계의 핵심적인 가치는 존중이다. 이것은 일방적 존중이 아니라 상호존중이다. 이것은 관계를 맺는 두 사람이 상호지지 해 주는

[77] 권진숙, 48.

[78] 권진숙, 49.

것을 말한다.[79] 이와 같이 장애인과 비장애인 혼합 교회는 서로의 상호존중을 바탕으로 해야 하며 그렇기에 이 연구의 바탕이 되는 사상이 관계신학이다.

B. 상호의존의 신학

장애인의 문제는 사회에서 오랫동안 묻혀 있던 주제이기도 하고 교회에서도 그리 관심을 두지 않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것은 시대정신의 한계가 그러하였기 때문만이 아니라 개인적인 차원에서 나의 직접적인 문제가 아니었기에 아무런 의식 없이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였기 때문이다.[80] 여기에는 나 아닌 타자를 무시하고, 타자 없이도 나 홀로 살아 갈 수 있다는 마음이 자리 잡고 있는데 장애인 문제에 대한 무관심은 자기 중심주의의 산물이고 이기주의의 결과이기도 하다.[81]

창조신학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은 사람을 제각기 여러 모양으로 다르게 창조하였을 뿐 우리가 표현하는 장애인을 창조하지 않았다. 다르게 창조되어진 사람들 중의 일부를 우리는 지체장애, 청각장애, 시각장애 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에게 장애인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사람들이 모여 만든 사회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구분 할 뿐이다.[82] 사회적 조건하에서 구분 되어 불리는 표현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이러한 조건하에 장애인이라 부르고 차별하는 사회를, 차별 없는 하나님 나라로 만들기 위함이다.[83] 하나님의

[79] 권진숙, 49
[80] 최대열, 33.
[81] 최대열, 33.
[82] 이계윤, “ 장애인 신학의 정의와 이해,” 21.
[83] 이계윤, 21.

창조물로서의 우리에게는 존중 받아야 할 다름이 존재할 뿐이기 때문에 장애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 사회적 장벽에 의해 장애를 경험하는 사람이 존재한다고 표현 하는 것이 옳다.[84]

'하나님 안에서 존재하지 않는 장애와 장애인이 이 사회에는 왜 존재하며, 더구나 교회에 왜 존재하는가?'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은 교회의 중요한 과제이다.[85]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이 몸은 사회가 만들어 놓은 모든 장벽을 넘어 차별 없이 모든 이들을 초대하며, 모든 이들에게 열려진 곳이다. 교회는 찾아오는 모든 사람을 뜨겁게 환영하며 사랑을 함께 나누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장애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속에서 단지 다름 이라는 시각으로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교회는 인간의 삶에서 장애인과 함께 사는 것을 특별한 것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일반 적인 것으로 받아 들일 수 있다. 부자나 가난한 자가 함께 예배 드리듯이, 어린이와 어른이 함께 예배 드리듯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은 교회 공동체의 온전한 모습이다.[86]

장애와 장애인에 대한 우리의 접근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다양성의 하나로 접근하고 비장애와 구별되는 문화적 특성으로 받아들이며 다양한 삶의 모습 중 하나로 이해하는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더 큰 사랑과 관심을 나타내셨듯이 우리의 세심한 배려와 관심을 필요로 한다.[87]

---

[84] 이계윤, 21.

[85] 이계윤, 24.

[86] 이예자, " WCC 와 장애인 신학," in *장애인신학,* ed. 대한예수교장로회 사회봉사부 장애인신학준비위원회 (서울: 한국장로교 출판사, 2015), 354.

[87] 이종원, " 기독교 윤리적 관점에서 본 장애인의 삶과 신학," in *장애인신학,* ed. 대한예수교장로회 사회봉사부 장애인신학준비위원회 (서울: 한국장로교 출판사, 2015), 306–08.

세계는 모두 하나님의 창조에 따라 서로 어울려 살아가는 존재로서 하나님과 타인과 자연과의 관계 안에 살아가는, 결코 혼자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88] 하나님은 인간을 한 사람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여러 사람들로 창조하였는데 이것은 인간이 부족한 존재로서 서로 기대어 살아가고 서로 채워주며 살아가라는 것이다.[89] 인간은 이웃과의 관계 속에, 이웃과 함께, 이웃을 위하여 살아야 할 책임적 존재이다.[90] 여기에 바로 참된 인간성이 있으며 아담이 그의 아내를 만나 외치는 환호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창 2: 23[91]) 이웃은 나에게 없어도 좋은 외적인 존재가 아니라 내가 존재하는 한 없어서는 안될 파트너이자 도움이다.[92]

안상님은 *여성 신학 이야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해 아내를 만드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상호의존의 신학이 갖는 성서적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 창세기 2:18 절의 '돕는 배필'의 의미를 설명하며 '돕다(ezer)'의 히브리 언어의 의미는, 있으면 좋고 없어도 되는 도움을 뜻하거나, 보조적인 아내가 주는 도움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없어서는 안되는 의미에서의 도움이라고 주장한다.[93] 그 이유는 이 '돕다'라는 단어가 항상 하나님의 도움을 뜻할 때 사용되던 표현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94] '배필(knegdo)이라는 히브리 언어의 의미도

---

[88] 최대열, 33.
[89] 최대열, 34-35.
[90] 김균진, *基督敎組織神學 II* (서울: 연세대학교출판부, 1989), 29.
[91]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는 표현은 외부에 있음을 일컫는 표현이 아닌 내 안에 존재하는 그래서 없어서는 안되는 소중함을 나타낸다.
[92] 김균진, 29.
[93] 안상님, *여성신학 이야기*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2), 69.
[94] 안상님은 그 근거로 신 33:29, 시 124:8, 70:5, 33:40, 115:9-11, 146:5 말씀을 제시하고 있다.

한쪽이 다른 쪽의 짝이 되는 차원을 넘어 두 손을 맞대고 깍지를 낀 상태와 같이 꼭 맞아서 빠지지 않도록 된 존재가 배필이라는 것이다.[95] 이것은 서로가 서로에게 단순히 외부적 도움의 존재가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차원의 도움을 줄 수 있는 내부적 존재로서 '돕는 배필'의 관계가 상호의존의 관계이다.

이것은 인간 상호간의 만남과 관계가 조화된 전체를 이루어야 함을 이야기 해주며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분리시켜 생각 될 수 없다는 것을 알려 준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이 관계 속에 있는 인간과 다른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며, 인간과 인간의 관계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결정한다.[96] 그렇기에 인간은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돕고, 협력 하는 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창조물 임을 보여준다.[97] 하나님의 창조물은 모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은 존재로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가운데 그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게 된다.[98] 즉 인간은 함께 도우며 살아가는 상호 의존적인 존재이다.

Kim-Cragg 은 이에 대해 어원적으로 인간존재의 의미를 설명하는데 사람을 나타내는 한자어 표기 "인 人"의 두 라인이 서로에게 기대고 있는 모양을 가지고 있으며, 이것은 우린 인간이 서로 의존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으로부터 도출된 인간의 속성 자체를

---

[95] 안상님, 70.
[96] 김균진, 31.
[97] 최대열, 35.
[98] 최대열, 34.

보여준다고 말한다.[99] 또 “Ubuntu” 라는 아프리카의 개념은 문자적으로 “ 우리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있다” 는 의미로 인류의 정체성을 공동체를 통한 상호의존의 형태로 표현 하고 있다고 말한다.[100] 동아시아의 “상생 相生”이라는 개념도 “상호적인 삶, 함께 살기”로 번역 할 수 있는데 함께 삶에 있어서 상호의존이 필수적임을 나타내는 표현이라는 것이다.[101]

그러나, 대부분 지체 장애인에 대한 사역에 대해서 논의하다 보면 그 저변에 있는 선입관들이 장애인들은 교회에 의존적이며 교회에 기여하는 바가 없다는 것이다.[102] 장애인에 대한 교회의 사역 저변에도 장애인들과 동등한 자리에서 서로를 바라보는 시각이 아닌 일방적으로 도움만 베풀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은 결국 장애인들은 다른 사람들의 도움 만을 받아야 한다는 시각에 머물고 있음을 보게 된다.[103] 말과 표현으로는 동등한 사역을 이야기해도 지금까지의 한계로 인하여 그럴 수 밖에 없음을 보게 된다. 그 한계는 개인적 선입견과 태도를 넘어서서 교회 안에, 사회 안에, 제도로서 이미 구조적으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 한계를 극복 할 수 있는 성서적 관점으로 Kim-Cragg 은 선한 사마리아 인의 말씀(누가복음 10:25-37)을 제시하고 있다. 그 동안 이 비유의 지배적인 해석은 강도 만난 자에게 선을 베푼 사마리아 인에게 중점을 두는 것이었고 그것을 전해 들은 자는 이와 같이

[99] HyeRan Kim-Cragg, “A Christian Feminist Theological Reflection on Economy of Life” *The Ecumenical Review* volume67, no. 2 (July 2015): 174, accessed November 10, 2015, DOI: 10.1111/erev.12148.

[100] Kim-Cragg, 174.

[101] Kim-Cragg.

[102] Black, 53.

[103] Black.

어려움에 처한 자에게 도움을 베풀어야 한다고 이야기 되었다. 그러나, Kim-Cragg 은 주는 자에게서 받는 자에게로 초점을 옮기고 있다. 강도를 만나 어쩔 수 없이 남에게 도움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유대인이 그 전에는 곤경에 처해있어도 어떤 관계도 맺기를 원하지 않는 사마리아 인의 도움을 받아들이고 있는 점을 지적한다. 사마리아 인으로부터 사랑과 친절을 받는 것이, 비록 고통스러울지 모르지만 자신의 믿음과 사회적인 관습을 부인하면서 강도 만난 자는 사마리아인이 베풀어 준 선한 행위를 인정 했다는 것이다.[104] 그래서 이 이야기의 중심은 사랑하고 섬겼던 사마리아 인이 아니라 사랑 받고 섬김을 받은 강도 만난 유대인이라는 것이다. 주고 베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받는 다는 것은 때로는 우리의 전통과 특권을 내려 놓는 것이며 이것이 가능해질 때 이것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진정 사랑하고 섬길 수 있게 된다.[105]

우리 모두는 서로 상호간에 관계를 맺고 있으며 서로가 서로에게 의지하고 있다.[106] 이것이 제도적으로도 구조적으로도 이미 그러함을 인지할 때, 이 출발점이 상호의존의 출발점이다. 상호의존의 신학은 이 바탕 위에서 모든 개개인의 가치를 귀하게 여기고 어느 한 사람이 우월한 자리에서 우월한 일을 감당하기 때문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존재로 모두가 전체 공동체에 기여한다는 시각을 전제한 신학이다.[107] 상호의존의 신학은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에게 해방과 행복을 선사하며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인도해 준다.

---

[104] HyeRan Kim-Cragg, " To Love and Serve Others(0r to Be Loved and Served)," in *Intercultural Visions: Call to be the Church,* ed. Rob Fennell (Toronto: UCPH, 2012), 27.

[105] Kim-Cragg, 27.

[106] Black, 53.

[107] Black, 55.

Chapter IV

설교 분석

A. 분석방법

이 연구는 지난 4 년간 부산 중부교회에서 행한 설교 본문 중에서 장애와 질병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설교를 선택하여 분석하였다. 본문 선택의 한계로 인해 2012 년, 2013 년, 2014 년의 설교 중에서 한편씩이 선택 되었으며 세편 모두 마가복음서가 본문으로 사용되어졌음을 밝혀둔다. 실제 설교 시 설교 원고에서 크게 벗어 나지 않음을 고려하여 이 연구는 설교 원고를 주 자료로 한다.

나의 설교를 분석하기 위한 구체적인 도구로서 분석의 기준(criteria)을 설정하였다. 설교 분석의 기준은 설교의 제목, 본문 해석의 관점, 원문 번역의 문제, 용어 사용, 상호 의존의 신학 적용 여부의 사항이다. [108] 각각의 기준에 따라 분석하였고 상호의존의 신학적 관점이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 비판하였다. 이 논문의 목적인 상호의존을 향한 설교 제시를 위해 적절한 분석이라고 여긴다.

다음으로 질병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마가복음 2 장 1−12 절의 본문(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신 사건)을 선택하여 상호 의존 신학적 관점에서 성서를 해석하여 설교문을

---

[108] 본문 해석에 대한 관점은 장애와 질병의 본문에 대한 각 설교의 접근이 전통적인 관점(죄나 믿음의 문제, 영적 은유의 문제, 믿음의 연단을 위한 과정, 성품을 계발하기 위한 기회, 은혜와 교훈을 주는 수단, 영적 은유나 성서해석상 또 다른 목표를 위한 입장) 중 에서 어떤 관점에 머물고 있는가를 비판적으로 분석하였다. 또 그러한 관점을 얼마나 넘어 서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분석하였다.

작성하였다. 이 설교를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 혼합 교회의 설교가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제시하였다.

B. 부산 중부교회 목회 현장 분석

분석된 설교가 선포된 부산중부교회는 부산 중구 보수동 1 가에 위치하고 있으며 1957 년 설립되어진 60 여년된 교회이다. 보수동 1 가는 1990 년대까지는 부산의 중심지였던 구도심 지역에 위치해 있으며 이 지역은 2000 년대 들어 부산 지역 외곽 신도시의 설립 후 점차로 하락세에 놓여 있는 지역이다. 그래도 주변에 국제시장, 부평시장, 자갈치시장, 남포동, 광복동 등의 번화가와 관광지가 가까운 지역이며 교회가 위치해 있는 책방 골목도 관광지 중 한 곳이다. 지역의 쇠락과 함께 대부분의 교인들은 교회 인근 지역을 벗어나 이사하였기에 교회 모임은 주일을 중심으로만 이루어지는 어려운 점이 있다.

부산 중부교회는 1957 년 설립 당시 함경도 성진 지역 피난민들을 중심으로 성도들의 자력과 캐나다 연합교회 선교부의 지원 속에 세워진 교회이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사 40:1)는 말씀을 안고 1950 년대, 1960 년대 피난민들의 위로와 교제의 역할을 감당하였다. 1957 년 설립된 교회가 2 년만인 1959 년에 현재의 교회 부지를 마련하여 교회당 완공까지 이룬 것을 보면 열정과 헌신이 넘치는 성도들로 이루어진 교회였음을 알 수 있다.

1970 년대에서 1980 년대에는 어두운 사회에 빛을 밝히는 부산 민주화 운동의 중심지 역할을 하였다. 교회 내에서 사회 과학 강좌들이 개설되었고 재야 민주화 인사들이 활동하면서 한때 이백여명 대학생들의 해방구와 같은 역할을, 때로는 도피처의 역할을 감당하였다. 또한 국제사면위원회 부산지부의 설립, 부산 도시 산업 선교회 창립이 교회와

밀접하다. 이 무렵 대표적 사건들을 예로 든다면 1978 년 부림 사건의 배경이 되는 양서 조합이 교인들과 청년들이 중심이 되어 결성되었고, 반미 운동의 시초라 불리는 1982 년 부산 미문화원 방화사건의 주된 인물들이 부산 중부교회 청년들이었다.

1986 년도 이후에는 교회가 중심이 되어 사회에서 소외되어 갈 곳이 없던 장애인들과 함께 하기 위해 한울 장애인 자활 센터를 개원하여 컴퓨터 교육을 통해 취업을 알선하였다.[109] 또한, 1990 년에는 한울 장애인 어린이 집을 설립 운영하여 유아 교육에서 제외 되어 있던 장애 아동들을 위한 유아교육을 감당하였다.[110] 이때부터 자활 센타와 어린이 집을 통해 인연을 맺은 장애인들의 일부가 교회 성도들로서 현재도 출석하고 있으며 매주 출석 교인들 중의 15% 가량의 비율을 보인다.

교회의 이러한 출발과 독특성은 지역사회에서 부산 중부교회는 민주화 운동을 하는 교회, 장애인들이 많은 교회로 이미지가 굳어져 있다. 이것은 장점이기도 하지만 단점이기도 하다. 부산 중부교회가 그 동안 피난민들을 위한 교회, 민주화 운동에 헌신하는 교회, 장애인들을 위한 교회라는 시대의 요청에 따른 역할을 감당해 왔다면 2010 년대에 들어서는 쇠락해 가는 교회 인근지역의 어려운 이웃들과의 나눔 활동에 애쓰고 있다. 명절 자금 지원, 김장 김치 나누기, 성탄 선물 나누기, 라면과 쌀 지원, 지역사회 고등학생 장학금 지원 등을 동사무소와 연계하여 진행하고 있다.

이것은 부산 중부교회가 일찍이 제정한 교회 표어(목적문)에 따른 신앙고백의 실천이다. “우리는 함께 모여 예배 드리고 배우고 사귀며 다같이 흩어져 선교한다”라는

[109] 장애인 시설로서 부산 지역 사단법인 1 호이다.

[110] 장애인 어린이만을 위한 어린이 집으로서 부산 지역 1 호이다.

표어와 “예배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며 배움으로 진리를 익히며 사귐으로 서로 사랑하고 친교하며 선교로 세상에 나아가 봉사한다”는 부산중부교회의 목표문은 한국교회에서는 상당히 이른 시기인 1980 년대 제정된 것이다.[111] 추가로 부산 중부교회 공동체의 독특성을 두 가지 살펴 볼 수 있다. 하나는 1970 년도에 첫 여성 장로를 선출한 이후 끊이지 않고 여성 장로의 맥을 이어왔다.[112] 또 한가지는 1997 년에 목사, 장로의 임기제에 대한 논의를 거쳐 1997 년 규칙을 제정하였고 2000 년도에 첫 신임투표를 실시하였다. 이후 계속하여 진행하고 있는데 한국교회 중에서도 상당히 이른 시기에 논의를 한 후 실행에 옮긴 교회이다. 이러한 것들이 부산 중부교회 공동체의 성격을 가늠해 볼 수 있는 내용들이다.

이러한 과정 속에 한울 장애인 자활 센타는 지금도 활발히 운영 중인데 이를 위해 부산 중부교회의 선교비 지출 중 대부분이 센타 지원금으로 쓰여지고 있다.[113] 한울 장애인 자활 센타는 독립법인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많은 교인들이 한울 장애인 자활 센타를 위한 한울 헌금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다.[114] 법인 이사회의 이사 18 명중 8 명이 부산중부교회

---

[111] 교회표어와 목표문은 언제 만들어져서 사용되었는지 불분명하다. 다만 1980 년대 발행된 주보에서 사용되었음이 확인된다.

[112] 여성장로 한 분이 2012 년에 사임 하신 이후로 지금은 시무중인 여성장로가 계시지 않다. 그래서 가까운 시일 내에 여성 장로만을 선출하기 위한 공동의회를 계획 중이다.

[113] 컴퓨터 교육부를 중심으로 시작한 한울 장애인 자활 센타는 현재 직업재활사업부(의료기, 컴퓨터 부품 조립 사업), 장애인 체험 활동 동아리 사업부(발달 장애인 활동 사업), 장애인 정보화 교육 사업부(컴퓨터 교육)로 확대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장애인 어린이 집은 현재 다른 센타로 이관되었다.

[114] 부산중부교회는 여타 교회와 달리 선교헌금 항목이 없으며 교인들은 한울 헌금으로 대신한다. 한울 헌금은 전액 센터 지원금으로 이전된다.

교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산중부교회 담임목사가 운영위원장과 당연직 이사를 겸하고 있다.[115]

부산 중부교회는 30 여년간 자활 센타를 지원해왔다. 출발 당시부터 가지고 있던 선한 목적을 견지해 가고 있지만 일부에서는 이에 대한 높은 피로도를 보이기도 한다. 어느 교인은 교회 생활 중에 늘 장애인을 섬기고 배려하는 일에 지쳤다는 것을 이유로 대며 교회를 떠난 경우도 있었다. 그렇기에 이 연구는 교회 내 장애인 인식과 사고에 변화를 가져오기 위한 노력이다. 이 노력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관계 개선과 상호의존의 신학을 바탕으로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기 위한 목적이 있다.

C. 설교 분석

1. 설교 1 내용

설교 원고 1 은 2012 년 저녁 기도회에서 한 설교로서 제목은 “여리고의 맹인”이다.[116] 본문은 마가복음 10 장 46 절로부터 52 절이며,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 눈뜨게 되어 예수님을 따르는 삶으로 변화된 것을 내용으로 한다. 도입부에서 맹인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 구걸하던 비참한 형편과 흑암의 자리에서 광명을 얻고, 예수님을 따라 나서는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개략적인 내용 요약을 소개하였다. 그리고, 어떻게 그러한 사람으로 되었는지를 청중들에게 물음으로써 설교에 호기심을 갖고 집중토록 하였다.

[115] 한울 이사장을 포함한 법인 이사들은 센터의 재정과 사업을 심의하지만 무급이며 모두 후원이사의 성격을 갖고 있다.

[116] 맹인이라는 표현은 성서 본문 표현이지만 재고 되어야 한다. 시각장애인이라 표현해도 이제 그리 어색하지 않을 것이다.

첫째, 내용 앞부분에서 바디메오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설명하며 그런 중에도 귀가 밝은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한다. 그 귀가 밝음으로 인해, 병자를 치유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다는 소문(복음)을 듣게 되고 들려진 이 복음을 통해서 바디메오는 소망을 갖게 되었다. 둘째, 이러한 바디메오와 나의 현실을 비교하며 우리는 혹시 눈까지 아니라 귀까지 들리지 않는, 복음에 무감각한 사람은 아닌지를 질문한다. 셋째, 이러한 현실에서 자신을 가로막는 사람들을 제치고 예수님께 자신을 불쌍히 여겨 달라고 부르짖는 바디메오의 신앙의 적극성, 믿음의 실천을 제시하며, 나에게 어려움과 고통이 있을 때에는 바디메오와 같이 주님께로 나아가 외치자고 제시한다. 그러면, 예수님은 바디메오의 외침에 귀 기울여 주심 같이 우리의 외침에도 귀 기울여 주신다는 것이다. 넷째, 예수님의 부르심에 겉옷을 버리고 뛰어 일어난 바디메오처럼,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의 겉옷(우리의 자아, 부, 명예) 을 던져 버리고 주님께로 나아가야 한다.

결론부에서는 무엇을 원하느냐? 는 예수님의 질문에 바디메오는 '보기를 원한다'는, 소박하고 진실된 간구를 통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는 칭찬을 받고 고침을 받았다. 우리도 바디메오처럼 간절함과, 겉옷을 벗어 버림과 보게 해달라는 소박하고 진실된 기도로서 주님께 나아갈 것을 요청한다. 요약하면 설교 1 은 바디메오의 믿음이, 행동의 적극성으로 이어졌고 이것이 결국 그의 고침을 이루어 냈다고 하는 것으로 이와 같은 적극성을 성도들이 따를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

2. 설교 1 의 분석과 수정

<u>설교의 제목</u>

설교 1 의 제목은 '여리고의 맹인'이다. 성서의 어느 이야기를 가지고 설교할 것인가 하는 것이 보이는 제목이다. 설교의 소재를 제시해 주고, 제목이 주는 친숙함이 있지만 너무 친숙 하여 설교에 다가가기에 식상한 제목이다. 본문을 중심으로 원래의 원고 의도에 맞춘다면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지른 맹인 바디메오, 겉 옷을 내버리고' 라는 제목을 붙일 수 있겠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 논문이 의도하는 상호의존의 신학적 관점에 맞추어 제목을 설정한다면 '무엇을 하여 주기 원하느냐, 보기를 원하나이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보게 되어 예수를 따르니라' 중에서 한가지를 제시하고자 한다.[117]

<u>본문 해석의 관점</u>

설교 1 의 관점을 살펴보면 장애와 질병에 대한 전통적인 관점에서 크게 벗어 나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 *육신적으로는 맹인이 아니고 부유하다 하더라도 영적으로는 바디메오보다 더 가난한, 눈 까지가 아니라 귀까지 들리지 않는 분은 아니십니까? 바디메오는 육의 양식을 지나다니는 사람들에게 겨우 구걸하여 먹고 살지만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주시는 영의 양식을 남에게 겨우 구걸하여 먹고 있지는 않습니까? 눈이 보이지 않을뿐더러 이제 예수님에 대한 말씀까지도 듣지 못하는 귀까지 들리지 않는 상태는 아닙니까*[118]

눈이 보이지 않는 것, 귀가 들리지 않는 것을 영적 은유의 비유로서 사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접근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문(복음)을 듣게 된 바디메오가 적극적으로 복음의 현장에 동참하고 소외된 공동체로의 복귀를 소망하는 모습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17] 왜 이러한 설교제목을 제시하는가에 대해서는 뒤에 나오는 상호의존의 신학 적용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다.

[118] 필자의 설교 원고를 직접 인용할 때는 이태릭체로 표기하겠다.

> *이 부르짖음을 듣고 있던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우리의 삶이 이렇습니다. 어렵게 어렵게 이제 눈이 멀어 보이지 않지만 귀 만큼이라도 들리게 노력하여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외칠 때에, 이 세상은 그냥 내버려 두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자 할 때 방해하는 주변 환경으로 만나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전통적인 관점이 반복되고 있다. 병 고침을 위하여는 장애물과 방해물이 있었고 그것을 헤치고 나아가야 한다는 믿음의 연단을 위한 과정으로 해석하고 있다. 또 그렇게 했을 때 주님께 나아가 맹인이 볼 수 있게 된다는 은혜와 교훈을 위한 수단의 모습으로도 접근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바디메오가 시각 장애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자신의 공동체에서 분리되었고 그 분리의 벽이 높고 두텁지만 예수님을 통해 보게 되었다는 것과 이것은 공동체로의 복귀를 이루고 자신을 회복시킨 것이 공동체의 온전성도 이루어 가게 된다는 접근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적합하다.

<u>원문 번역의 문제</u>

성서에 나오는 표현과 단어들을 원문을 통해 살피는 것은 문장이나 이야기, 사건이 우리에게 제시하고자 하는 바에 비교적 가까이 갈 수 있는 방법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원문이 의미하는 바와는 동떨어진 채로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 갈 수 있다. 설교 1 에서도 그러한 문장이 보이는데

> *그가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소개되고 있는데, 만약 그가 어릴 때부터 눈먼 맹인으로 버림받은 사람이라면 그의 아버지까지 성서에 소개될 리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 소경 역시 마땅한 이름을 가지지는 못한 사람일 것이라는 것입니다.*

디메오라는 것은 불결한 더러움이라는 의미로 바디메오는 길가에 앉아 있는 거지를 표현하는 적절한 이름이다.[119] 이 설교 본문에서 중요한 표현으로 사용되어 살펴보아야 할 맹인, 겉옷을 내버리고, 보기를 원하나이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보게 되었다, 예수를 길에서 따랐다 라는 것은 본문의 바로 앞 문단인 11 장 35 절에서 45 절 사건을 우선 살펴야 한다.

여기에는 제자들이 예수께 나아와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달라는 요청이 나온다. (37 절)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한다(35 절)는 요청과 예수님이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며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고 반문이 나온다. (38 절) 이어서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43-44 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대속물로 주려함(45 절)이라고 하고 있다.

앞의 본문의 내용과 비교하여 바디메오의 본문을 읽게 되면 앞 본문의 내용들이 바디메오 이야기를 세세히 풀어 주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 제자들의 요청과 바디메오의 요청,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예수님의 말과 맹인이라는 표현, 섬기는 자와 종이 된다는 것과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난다는 표현, 섬기는 자가 되고 대속물이 된다는 것은 맹인 바디메오를 구원한 믿음이 어떠한 믿음인지, 또 보게 된 것이 무엇을 보게 된 것이고 예수를 길에서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좋은 길잡이가 된다.

설교의 방향은 원문 해석만 충분히 되더라도 엉뚱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설교 1 은 원문 해석의 불충분함으로 인하여 성서 본문이 단순히 장애물을 넘어 그의

---

[119] 강일상, *마가복음의 기적이야기*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7), 545.

믿음을 행동으로 보임으로써 맹인이 보게 된다는 단편적인 내용으로 한정시켰다고 비판 할 수 있다.

용어 사용

설교 1 에서 잘못 사용된 표현이 두드러지지는 않지만

이 세상의 어떠한 방해와 꾸짖음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이 시간 주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나는 죽을 때까지 눈먼 맹인으로, 안 들리는 귀머거리로 살아가야만 한다는 그 절박함으로 기도하십시오.

에서와 같이 맹인은 시각장애인으로, 귀머거리라는 표현은 청각장애인으로 표현한다고 해도 이제는 그리 어색하지 않을 것이다.

상호의존의 신학 적용 여부

우리 모두는 서로 상호간에 관계를 맺고 있으며 서로가 서로에게 의지하고 있다. 상호의존의 신학에 바탕을 둔다고 할 때는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고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주거나 받기만 하는 관계가 아님을 전제한다. 그러한 면에서, 있는 그대로의 존재로 모두가 전체 공동체에 기여한다는 시각이다. 이를 설교에 적용한다고 할 때는 개별적인 관계를 하나의 공동체로 이끌어 낼 때 쉽게 접근 가능하다.

설교 1 에서는 예수님,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 맹인 이라는 세 부류로 관계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설교 1 에서는 상호의존의 신학에 바탕을 둔 적용을 보이지 못했다. 주는 자로서의 예수님, 그 중간에서 이를 방해하는 자로서의 제자들과 무리들, 그리고 고침을 요청하고 받는 자로서의 맹인을 설정해 버렸는데 이는 비판의 대상이며 전통적인 해석에 머무르는 관점이다.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과 무리들, 맹인 이렇게 세 부류로 나누어진 설교 1 에 대해 상호의존의 신학적 적용을 다음과 같이 하고자 한다. 첫째, 바디메오의 본문 만이 아닌 바로 앞의 본문(35-45 절)들과 엮어서 구성한다. 앞의 본문에서 보이는 제자들의 모습, 무엇을 구하는지도 모르고, 깨닫지도 못하고,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이들을 위해, 예수님께서 맹인을 등장 시켜 해결하여 하나의 공동체로 세우고자 한다.

둘째, 맹인은 예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는다. 그러나, 그의 역할은 고침을 받는 것만이 아니라 그가 나타내 보인 모습을 통해 전체 공동체에 기여하고 있다. 그것은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보기를 원하나이다'를 통해 자신의 눈 뜨임 만이 아닌 제자들의 깨달음을 유도하고 있으며, '곧 보게 되어(깨닫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는 것, 섬기는 자가 되는 것, 종이 되는 것)를 통해 예수님이 자리 다툼이나 하는 제자들에게 이르고자 하였던 믿음('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다. 예수님으로부터 받는 것만이 아닌 그의 역할을 통해 예수님의 사역에 큰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다.

셋째, 맹인은 이제 볼 수 있는 상황으로 변화되었다는 것만으로 온전한 치유를 얻었다 할 수 없다. 보지 못함으로 인해 분리 되었던 그의 무리들(공동체)속으로 받아 들여질 때에 온전한 치유라고 할 수 있다. 예수님의 맹인 치유는 이 사건을 통해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들을(공동체) 깨우쳐 주신다. 이전에는 맹인을 꾸짖어 잠잠하라고 하며 공동체에서 분리시키던 무리들을 이제 그 맹인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변화 시켜 주시는 사건이다. 맹인을

통해 깨우쳐진 무리(공동체)가 맹인을 무리(공동체) 안으로 받아 들임으로써 온전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것이다.

이제 설교 1 은 이렇게 다시 적용할 수 있다. 예수님은 맹인을 고쳐 주시고, 맹인은 예수님이 의도하시는 사역을 이루어 가는 역할을 감당한다. 맹인의 역할을 통해 허다한 무리가 깨우침을 받고, 깨우쳐진 무리는 다시 맹인을 공동체 안으로 받아 들임으로서 버려진 자 없는 온전한 공동체를 이룬다. 이 공동체는 이제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역을 이루어 가는 공동체가 되어간다. 이것이 설교 1 을 재구성한 상호의존의 신학적 적용이다.

3. 설교 2 의 내용

설교 2 는 2013 년 9 월 29 일 오후예배에서 한 설교로서 제목은 “수로보니게 여인 이야기”이다. 본문은 마가복음 7 장 24 절로부터 30 절이다. 두로 지방에서 더러운 귀신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모멸스러운 예수님의 응대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청하여 그의 딸이 고침 받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도입부에서 예수님께서 수로보니게 여인은 이방 여인이고 더러운 귀신 들린 딸을 가진 여인이지만 겸손한 마음과 예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컸기에 어려움을 이겨내고 딸의 고침을 이끌어 낸다는 개략적인 내용 요약을 소개하였다. 이를 통해 유대인들의 형식적인 믿음에 대비하여 간절한 믿음의 표현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청중들에게 물음으로써 시작하고 있다.

첫째, 앞부분에서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인가를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수로보니게 족속이라는 이방 여인이라는 것과 이방 여인이 유대인들로부터 어떤 대접을 받는 사람인지를

설명한다. 둘째, 이러한 여인이 예수님의 대한 소문(복음)을 듣게 됨으로써 이 예수님 이라면 자기 딸을 낫게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 셋째, 그래서 예수님에게 나아갔지만 예수님의 반응은 너무도 충격적이었다. 누가 듣더라도 지나치다 하리만큼 냉혹하게 이 여인을 대하는데 정말 예수님일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라는 것이다. 넷째, 그런데 왜 예수님이 이러한 말씀을 하셨을까? 하는 것을 청중들에게 묻는다.

그것은 이 여인의 믿음을 견고케 하시고 연단하시고자 하심 이라는 것과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다는 것을 명백히 하여 여인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 시키려 한다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구원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기 위함이라는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에 대하여 여인의 대답은 모든 것이 그러함을 시인하고 자신이 비천한 개임을 인정하고 예로 응답한다. 그것은 이 여인이 자신의 딸을 지극히 사랑하여 낫게 하고자 하는 열망이 크기 때문이며,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주권을 깨닫고 죄인인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라면 자신을 버려야 한다는 것을 실천에 옮겼기에 딸의 치유함을 받아 내었다는 것이다. 결론부에서는 이방 여인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 놓을 때 은혜가 임하였고, 예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기에 모멸스러운 말씀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붙잡았 듯이 우리에게도 이렇게 멸시를 당하고 조롱을 당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굳게 붙잡는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4. 설교 2 의 분석과 수정

<u>설교의 제목</u>

설교 2 의 제목은 '수로보니게 여인 이야기'이다. 설교 1 의 제목과 마찬가지로 성서의 어느 이야기를 가지고 설교할 것인가를 미리 알 수 있는 제목이다. 설교의 소재를 제시해 주고, 제목이 주는 친숙함이 있지만 식상한 제목이다. 본문을 중심으로 원래의 설교 의도에 맞춘다면 '발 아래 엎드린 여인, 나는 상 아래 개입니다.' 라는 제목을 붙일 수 있겠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 논문이 의도하는 목적에 맞추어 제목을 설정한다면 '이 말을 하였으니, 예수님과 이방 여인, 두로 지방으로 가신 예수님'등을 제시하고자 한다.

<u>본문 해석의 관점</u>

설교 2 의 관점도 설교 1 의 관점에서 크게 벗어 나지 못하여 장애와 질병에 대하여 전통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 *예수님은 이 여인의 믿음의 말에 감동을 받으시고 그녀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그녀의 딸을 고쳐 주셨습니다. … 예수님의 말씀은 여인을 실족시키고자 함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 여인의 믿음을 견고케 하시고 그녀를 축복 하시기 위해 그 믿음을 연단하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딸이 귀신들려 고통 당하는 것을 믿음의 문제로, 또 믿음의 연단을 통해 축복해 주시기 위함이라는 관점에서 머물고 있다. 오히려 예수님께 나아온 여인의 적극성과 예수님의 말씀에 기죽기 않고 대응하고 있는 여인의 모습을 조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여기에서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아 오기까지, 그리고 그 발 아래 엎드리기까지 결코 쉽지 않은 길로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 여인은 자신이 아무 자격이 없는 비천한 개에 불과함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조금도 반발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도 불평 하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힘든 말씀이라 할지라도 '예'로 응답했습니다. 이 여인은 '아니오'가 없었습니다.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자기를 발견했습니다. 죄짓고 타락한 인간의 실상을 깨달았습니다. 이 여인은 주님께 은혜를 구하기 위해 자기의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자기를 주님 아래 내려 놓았습니다*

전형적인 자기 성품을 계발 하기 위하여, 또 은혜 받기 위한 수단의 관점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서도 설교 1 과 마찬가지로 원문의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고 출발한다면 전통적인 관점에서 충분히 벗어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원문 번역의 문제

설교 2 에서 살펴 보아야 할 몇 군데 원문이 있는데 하나는 '더러운 귀신 들린 딸' 이라는 표현이다. 여기서 더러운 귀신은 '프뉴마 아카다르톤' 이라는 단어로 an unclean spirit, '더러운 영'이라는 표현이다. 마가복음의 귀신은 대부분 이 표현을 쓰고 있는데, 26 절과 29 절의 '귀신'은 '다이모니온'을 사용한다. '더러운 영'의 더럽다 라는 것에 관심을 갖는다면 수로보니게 여인 본문 앞의 사건(1-23 절)에서 '정결 논쟁'을 벌이는 장면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예수님은 이 논쟁의 마지막에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20 절) 라고 말씀하신다. 그리고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이며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 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21-23 절)고 말씀하신다.[120]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이 어떤 더러운 귀신에 사로 잡혔는가를 앞에서 미리 지칭해 주는 내용이라 할 수 있다. 즉 딸의 영이 21 절-23 절의 이러한 더러운 목록들에 더럽혀져서 '다이모니온'의 상태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또 한가지는 29 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의 '이 말, 이 '로고스'가 어떻게 귀신을 쫓아 내는 역할을 하는가의

[120] 강일상, 383.

문제이다. 이 역시 본문의 앞 구절과 연결 지어 해석해 볼 수 있다. 21, 22 절에 제시되는 악한 목록들이 사람에게서 나와 사람을 더럽게 만든다면,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은 사람의 입에서 나온 이 목록들로 인해 그의 영이 더럽게 되어 귀신들렸다. 결국 '다이모니온'이 되어 버렸다.

그런데, 그 딸의 어머니는 예수님께 나와 딸의 귀신을 내쫓아 주시기를 간청했다. 예수님은 이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 이 여인의 입에서는 21, 22 절의 악한 목록이 아닌 29 절의 '이 말'을 하게끔 하여 딸의 더러워진 영이 깨끗해 지도록 이끌고 계시는 것이다. '이 말'은 28 절 '주여 옳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라는 말이다. 이것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자신을 개로 인정하고 부스러기라도 구하는 '겸손과 순종, 절제' 등으로 말 할 수 있으며 이것은 당연히 '악한 목록'과 대척 점에 서 있는 목록들이다.

딸의 어머니가 이렇게 겸손과 절제의 말을 하는 사람이 되면, 그의 딸도 '악한 목록'의 세상에서 벗어나 깨끗케 되어 귀신이 나가게 된다는 것이다. 설교 2 는 이와 같은 원문 해석의 정확성이 없기에, 설교의 바른 방향을 바라볼 수 없다. 그렇기에 상호의존의 신학 관점으로 설교를 진행 할 수 없다는 명백한 한계를 보인다.

<u>상호의존의 신학 적용</u>

설교 1 에서도 기술하였듯이 상호의존의 신학에 바탕을 둔다고 할 때에는 우리 모두 서로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있는 그대로의 존재가 전체 공동체에 기여한다는 관점이다. 이를 설교 2 에 적용한다면 설교 1 보다 확대되어 유대 공동체가 아닌 이방 공동체로까지 품어내는 관점으로 볼 때 좋은 적용이 될 것이다. 한가지 특이하게 살필 수 있는 것은

수로보니게 여인이 등장하는 두로 지방이라는 24 절의 번역이 구 개역판 성경에서는 두로 지경으로 번역되었다. 헬라어 원문의 '호리아'는 '지방'보다는 '지경'이 맞으며 유대 지역과 이방인 지역의 경계선(borders)지역(국경지역)의 여인으로 볼 수 있다.[121]

곽퓰란은 그의 논문 "Discovering the bible in the Non-Biblical World"에서 여러 나라 에서 살게 되었던 자신을 "아주 동일 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아주 다르지도 않게, 들락거리는 미확인된 경계 공간에 서 있었다"[122] 는 표현을 쓰며 동시에 다른 국경을 넘는 유동성과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 하고 있다.[123]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가 바로 이러한 이방인으로서 또 유대인 국경지역에 사는 경계인들을 품는 말씀으로 이해 할 수 있다.

설교 2 역시 본문(7 장 24-30)을 앞의 구절(1-23)과 엮어서 접근해야 한다. 앞의 구절의 내용은 장로들의 전통 이야기로 시작되어 예수님께서 인용하시는 이사야의 말씀, 모세의 율법까지 인용되고 있다. 즉 전통적인 유대인 중심의 이야기들로 형성되었다는 것이다. 아울러 무엇이 진정 사람을 더럽게 만드는지에 대한 주님의 말씀과 함께 사람을 더럽게 만드는 목록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설교 2 에서 예수님, 두로 지방의 수로보니게 여인과 그의 딸, 이렇게 세 부류를 생각 할 수 있다. 여기에 보이는 개인은 단순한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를 대표한다.

---

[121] 제자원, ed., *마가복음 1-9*, 옥스퍼드 원어성경대전 vol. 104 (서울: 제자원, 2003), 596.

[122] Pui-lan Kwok, "Discovering the bible in the Non-Biblical World" *Ewha journal of feminist theology [1226-816X] 1997* vol. 2 (1997), 143, accessed December 20, 2015, http://www.dcollection.net/handler/ewha/000000008056.

[123] Pui-lan Kwok, 144.

수로보니게 여인은 이방인(경계인)[124] 공동체를 대표하고 그의 딸은 이방인 공동체의 자녀들 세대로 확대되는 것이다.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 그의 구원 사역을 이방인 공동체 에로 확대 시키고 있다.

둘째, 수로보니게 여인은 그의 딸의 고침을 원했다. 그의 딸이 귀신들렸다는 것은 그의 딸 세대가 이미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악한 목록'들에 의해서 더럽혀졌다는 것이다. 마가복음서 기자는 이 책임이 먼저 기성세대의 책임인 것으로 나타내고자 하였다. 이 책임이 자녀세대에만 있는 것이 아닌 기성세대에 있다는 것이기에 성서 본문에, 그의 딸은 현장에 등장하지 않는다. 기성세대의 소망이 자녀 세대에 있기에 자녀 세대의 고침이 이루어져야 하며 자녀 세대의 고침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기성세대의 변화가 필요함을 보여주는 상호간에 의존되어 있는 모습이다.

셋째, 구원 사역이 이방인 공동체에게로 확대하기 위해서 본문 앞에서 이야기 되는 장로들의 전통(3 절),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6 절), 모세의 율법을(10 절) 알기도 하지만 이방인 전통 가운데 있는 인물을 등장 시킨다. 이 인물은 양쪽을 알기도 하지만 양쪽 모두에 어색하기도 한 경계인 수로보니게 여인이다.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관계하지 않는다. 더구나 이방인 여인과는 더욱 관계 맺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방 여인의 다가옴과 요청을 듣고 그녀와의 관계를 시작하고 계신다. 이 관계가 시작됨으로써 이 여인은 딸의 고침을 허락 받고 이 고침은 또한 예수님의 이방 사역의 역할을 나타낸다. 더욱이 이 여인이 먼저 간구하였고 예수님이 대답하는 형태를 보이는데, 이방인 지역으로의 사역 확장을

[124] 여기서 쓰이는 이방인이라는 표현은 경계인을 포함한다.

원하였던 예수님에게 수로보니게 여인은 그 역할을 충실히 감당한 인물이다. 이 사건을 통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동일한 관계 속에 예수님은 동일한 사역을 보여주시며 이방인 공동체나 경계인 공동체도 차별 받는 공동체이거나 따로 다루어지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의 공동체로 다루어진다.

넷째, 딸이 귀신들림으로 인해서 이 여인은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서 환영 받지 못하였다. 또한 딸의 고침을 위해 동분서주하느라 자신의 집에도 돌아가지 못했다. 그러나 딸의 귀신이 나갔다는 말씀을 듣고 집으로 돌아갔다는 표현은 가정공동체의 회복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제외되었던 자신의 공동체로의 회복도 의미한다. 이것은 또한 수로보니게 여인과 그의 딸이 속한 공동체의 온전성 회복도 함께 이르는 말이다.

이제 설교 2 는 이렇게 다시 적용할 수 있다. 예수님은 수로보니게 여인의 귀신 들린 딸을 고쳐 주시고, 이를 통해 수로보니게 여인은 그 동안 배제되었던 자신의 공동체(집에 돌아가)로의 복귀를 이룬다. 또한 이 공동체는 수로보니게 여인과 그의 딸의 복귀를 통해 잃어 버린 양이 없는 온전한 공동체를 이룬다. 이 공동체는 예수님이 원하시던 공동체이다. 장로들의 전통, 이사야의 말씀, 모세의 율법과 이방인들의 삶과 전통의 경계선에서 양쪽을 다 알면서도 양쪽 모두로부터 어색한 상태로 놓여 있는 상황에서 귀신(더러운 영, 악한 목록)을 내보냄으로써 '이 말'(순종과 겸손 등)을 실행하는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이다. 또한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관계하지 않는 이방 여인의 간구에 반응하여 관계를 시작 하심으로써 유대 공동체와 이방인 공동체(경계인 공동체) 모두를 품어내는 새로운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이 설교 2 를 재구성한 상호의존의 신학 적용이다.

5. 설교 3 의 내용

설교 원고 3 은 2014 년 11 월 30 일 주일예배에서 한 설교이다. 이 날은 새 생명 초청 주일로, 홈커밍 썬데이로, 한울 장애인 센타가 함께 일년의 하루를 정해 함께 예배 드리는 한울의 날 예배로 드렸다. 본문은 마가복음 5:25-34 절 말씀이다. 평소보다 장애인과 장애인 보호자의 참석이 많은 주일이었다. 설교 제목은 "누가 내 옷에 손을 손을 대었느냐"이다. 혈루증을 앓아온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처지에서 뒤에서 옷에 손을 대어 구원받은 것을 내용으로 한다.

도입부에서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갔는데 그 소문을 들은 사람들 중에 12 년간을 혈루증으로 고통 당하는 여인이 있음을 소개한다. 이 여인의 처지를 설명하며 나의 처지와 비교하도록 이끌고 있다. 첫째, 내용 앞부분에서 이 여인의 처지가 유대인 사회에서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함으로서 왜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매달릴 수 밖에 없는지를 설명한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여인의 처지가 나의 처지와 같음을 제시하고 있다. 둘째로 이 여인이 처해진 상황의 절박함을 강조하면서 왜 그가 예수님의 앞에 나서지 못하고 뒤로 가게 되었는지를 설명한다. 그리고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살펴보며, 떠밀리는 많은 군중들이 호기심과 구경거리로 예수님께 나아왔지만 이 여인은 특별하고도 간절한 목적이 분명히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셋째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두려워 떨며 고한 후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는 선포를 듣게 된다. 결론부에서는 이 여인의, 목적 있는 손댐이 주님의 능력을 이끌어 냈음을 강조하며 오늘 초청 받아 교회 나온 모든 이들이 그저 호기심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과 같이 목적 있는 '손 댐'이 있으며 그 행위와 믿음에 의해 구원 받는 역사가 이루어 지기를 강조하고 있다.

6. 설교 3 의 분석과 수정

<u>설교의 제목</u>

설교 원고 3 의 제목은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이다. 제목을 통해 청중들에게 의문과 흥미를 갖게 하는 좋은 질문이다. 본문을 중심으로 원래의 원고 의도에 맞는 다른 제목을 설정해본다면 '예수님께 다가온 여인,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라는 제목을 붙일 수 있겠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 논문이 의도하는 상호의존의 신학 관점에 맞춘 제목으로는 '뒤로 와서 손을 대니,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등을 제시하고자 한다.

<u>본문 해석의 관점</u>

설교 3 의 관점은 전형적인 죄와 믿음의 문제로 보고 있다.

이 여인은 회당에도 갈 수가 없었습니다. 구약의 법대로 하면 이 여인은 부정한 여인입니다. 본인 뿐만이 아니라 이 여인이 손을 대는 물건이나 사람도 부정해 지는 것입니다.
부정한 여인이니 군중 들 틈에 있으면 안됩니다. 자신의 부정함이 있는 사람은 사람들 이 다가오면 자신이 부정하다고 소리치며 사람들을 멀리 보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 앞에 나서지 못하고 뒤로 들어올 수 밖에 없는 여인이죠. 이 여인의 소망이 얼 마나 간절한가를 알 수 있습니다.

부정하다는 표현은 예수님도 사용하지 않으셨고 본문에도 나타나 있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교자는 혈루증 여인을 임의로 부정한 여인으로 만들어 버렸다. 부정한 여인이란 죄를 지어서 그러한 것이기에, 설교자는 혈루증 여인을 죄인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가지고

있다. 또한 그러한 여인이 예수님께 먼저 다가가 병 고침을 받는 '믿음의 연단을 위한 과정'이라는 전통적인 시각에 머무른 설교이다.

원문 번역의 문제

설교 3 에서 원문 번역에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첫째로, 27 절의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었다' 라는 표현이다. 여기서 뒤로 와서 (오피스덴-오피소)라는 말은 마가복음에서 여기만 나오는 말인데 이 말의 용례는 예수의 뒤를 따라오라는 (1:27, 20) 경우에 쓰이는 표현이다.[125] 즉, 예수의 뒤를 따라 그의 삶을 따르는 생활을 이를 때 쓰이는 표현이다.

둘째로, 예수님은 34 절에서 '딸아(뒤가테르)'라고 부르시는데 이것은 25, 33 절의 여자(귀네)라는 표현과 비교된다.[126] 35 절의 야이로의 딸을 이야기할 때 나오는 '뒤가테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을 보아 예수님이 부르시는 딸이라는 표현은 단순히 친근감이나 배려의 차원에서 부르신 호칭이 아니라 실제적인 부녀의 마음으로 부르는 호칭이다.[127]

상호의존의 신학 적용

혈루증 앓는 여인의 본문을, 단지 예수에 대한 소문을 접한 이 여인의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적극적 행동의 결과가 고침 받는 사건으로 이어졌다고 해석한다면 상호의존의 신학 적용이 쉽지 않다. 소외된 여인의 적극적 행동을 칭찬하는 것은 호평 받을만 하지만 아쉽게도 설교자는 전체적으로 전통적인 관점에 머물고 있으며 이는 비판 받아야 한다.

---

[125] 강일상,279.
[126] 제자원, 442.
[127] 제자원.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상호의존의 신학적 관점으로 적용해 본다면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첫째, 혈루증을 앓는 여인은 단순한 개인이 아니라 일반적인 유대 공동체 개개인을 대표한다. 많은 의사(권력자들)에게 많은 괴로움(수탈)을 당하여, 낫기는커녕 병이 중하게 되었다. 그것이 혈루증(피 흘리는 고통)을 의미한다.

둘째, 예수님은 이러한 유대 공동체를 구원하기 위해 구원 사역을 펼치셨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유대 공동체가,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과 기적 사건들을 통하여 순간적으로만 만족하여 사는 삶이 아니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내는, 행동하는(말씀을 따라 사는 행동) 자들이 되기를 원하셨다.

셋째, 혈루증 앓는 여인은 권력자들에 의해 피 흘림(수탈) 당하는 삶 가운데서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복음을 전달 받고)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뒤로 와서)을 살아냈다. 예수님의 옷(메시야– 하나님의 아들)과 접촉을 하여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으로부터 ‘딸’이라는 호칭을 받아냈다. 넷째, ‘딸’이라는 호칭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내는 유대공동체에 주시는 상급이며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이를 증명해 준다.

이제 설교 3 은 이렇게 다시 적용할 수 있다. 안상님은 열두 해를 혈루증으로 살아온 이 여인을 12 년동안이나 하혈을 했으니 이를 정결케 하는 의식인 속죄제나 번제를 드릴 기회도 주어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집밖에도 나갈 수 없었고 아무것에도 손댈 수 없는 여인으로 설명한다.[128] 12 년을 생각한다면 이 여인은 공동체에서 소외되었다는 차원을 넘어

---

[128] 안상님, *여성신학이야기*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2),137.

공동체에서조차도 죽은 자로 취급되는 사람이다. 이 여인을 예수님께로 데려올 사람도 없고 고쳐달라는 말도 스스로 못하는 여인이다.[129]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깃이라도 만지면 나을 것으로 믿고 행동하였다. 그러나, 부정하다고 여겨지는 이 여인의 행동은 당시의 관습으로는 큰 죄를 지은 것과 마찬가지이다. 그렇기에 두려워 떨었다고(33 절) 하고 있다.

예수님은, 사회적 통념에 의해 죄인으로 치부되어 공동체에서 잊혀진 이 여인을 많은 사람들 앞으로 불러내어 그녀의 모든 이야기들을 쏟아 내게 하고(모든 사실을 여쭈니−33 절) '평안히 가라'(34 절) 고 선언한다. 이것은 사회적 통념을 거부하고 번제와 속죄제도 필요없이 이 여인을 온전한 인간으로 회복시키는 예수님의 해방 선언이다.[130] 이를 통해 이 여인이 속한 공동체도 그 동안 이 여인이 있는지 없는지 조차 모른 채로 지내던 불완전한 공동체가 아니라 이 여인의 돌아옴을 통해 온전성을 회복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다. 이것이 설교 3 을 재구성한 상호의존의 신학 적용이다.

여기까지 필자의 설교를 분석하여 설교의 제목과 함께 관습적이고 전통적인 기존의 접근방식에서 얼마나 벗어났는가를 살펴보았고, 상호의존의 신학 관점에서 설교가 어떻게 수정되어 제시되어야 하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를 토대로 장애와 질병의 내용을 다루는 본문을 어떠한 방법으로 관계 지향적인 상호의존의 신학을 바탕으로 한 설교를 만들어 갈 것인가에 대해서 요약해보면 첫째로 원문 해석에 충실하여야 한다. 충실한 원문 해석은 관습적인 해석에서 벗어나 상호의존의 신학적인 해석의 개방성으로 이끌어 준다. 둘째,

---

[129] 안상님, 138.

[130] 안상님.

등장인물들의 존재와 관계에 대한 존중이다. 누구는 주고 누구는 받아야만 한다는 차별적 존재나 등급적 존재로서 보는 것이 아닌, 그 존재 자체로서의 존중과 그 존재와의 관계를 어떻게 형성해 나갈 것인가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다. 셋째, 항상 공동체의 온전성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성서 이야기는 공동체가 배제된, 개인적이고 개별적인 이야기만으로 구성되지 않으며, 온전한 공동체는 공동체 내의 소외나 차별을 불허하고 그 존재만으로도 상대방에게 기여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다. 넷째, 나의 설교의 관점을 그 동안의 관습적이고 전통적인 관점과 비교하여 점검하는 것이다. 이렇게 위에 제시된 사항들을 염두에 둔다면 상호의존의 신학적 관점에서 설교를 구성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Chapter V

상호의존의 신학에 근거한 설교 제시

상호의존의 신학에 바탕을 둔 설교 제시를 위한 성서 본문은 마가복음 2 장 1 절에서 12 절이다. 제목은 "아들아!" 이며 귀납적 방법과 연역적 방법을 혼용하였다. 이 설교문으로 2015 년 7 월 19 일(주일) 예배 시간에 25 분간 전교인을 대상으로 설교 한 후 일부 수정하였다.

본문 내용을 요약하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계시다는 소문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왔지만 많은 사람들로 인해 예수님께 다가갈 수 없었다. 이 사람들은 지붕위로 올라가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어 중풍병자를 달아 내렸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아들아! 라고 부르며 죄 사함을 받았다고 선언하셨다.

1) 예화에 대한 이해

이 설교에 사용된 예화는 모두 필자가 경험한 내용들이다. 설교자의 직접 경험을 예화로 사용한 것은 청중들에게 본문과 설교자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며 듣는 이로 하여금 설교에 공감하게 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며 모두 3 편의 예화를 사용하였다.

예화 1 – '장애인이 된다면 어떤 처지와 심정일까?'를 사고를 당한 나의 경험을 통해 동감하는 부분을 표현하였다. 이것은 장애인에게 다가 갈 수 있는 작은 손짓이며 비장애인도 언제든지 동일한 상황에 처할 수 있음을 알려줌으로써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설교의 범주 안에 있음을 일러준다.

예화 2 – 상호의존의 신학에서 이야기 하는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내용에 대한 예화이다. 장애가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무언가 특별하거나, 내가 꼭 도움을 주거나 또는 받는 사람으로가 아닌, 그 상태 그대로의 관계성을 이야기한다.

예화 3 – 예수님에게로 가는 길을 가로 막는 장애물을 생각하며 장애인의 이동에 대해 휠체어 도우미로 참여하면서 느낀 점을 서술한다. 비 장애인으로서는 생각지 못한 장애인의 어려움을 함께 동행하면서 경험한 것을 통해 예수님께 가고자 하지만 다가가지 못하는 어려움의 모습을 예화로 삼았다.

B. 설교 제시[131]

본문: 마가복음 2:1-12 제목: 아들아!

(예화 1) – 지난번 전국 목회자 축구대회에 참석하였다가 시합 도중에 상대 선수와 부딪혀서 운동장에 나뒹굴었던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단순 타박상으로 여겼는데 돌아온 뒤 3-4 일 후부터 크게 탈이 났습니다. 옆구리가 아파서 팔을 들어 올리기조차 힘들었는데 점점 더 움직일 때마다 통증이 몰려왔습니다. 결국 병원을 찾아야 했고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받은 진단은 갈비뼈에 금이 갔다는 것이었습니다. 듣기에 더욱 곤란한 점은 유일한 치료 방법이 몸을 덜 움직이고 무리하지 않는 것뿐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쪽으로 누워 있어도 편한 자세가 없을 정도로 힘들었고 일주일정도 지나면서 차츰 호전되어 되었지만 한달 여를 고생하였습니다. 이 기간 가장 곤란한 점을 꼽으라고 한다면 힘을 써서 해야 되는 일은 어쩔 수 없이 타인의 도움을 받아야만 했다는 것이고,

---

[131] 여기에서 필자의 설교는 이태릭체를 사용하지 않는다.

활동적인 운동을 좋아하는 몸이 마냥 조심히 지내야 하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고 싶은 곳에 마음대로 가지 못하는 처지가 된 것이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이 내게는 한달여 만에 끝나게 되었지만 질병이나 장애에 의해서 영구적으로 이러한 처지가 되었다면 정말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특히 우리 장애인 성도 여러분의 심정을 짧은 시간이나마 겉핥기 식으로라도 느껴보는 기간이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 본문을 읽으면서 등장하고 있는 중풍 병자는 과연 어떤 심정이였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본문에 중풍 병자로 표현되고 있는 '파라루오'라는 단어는 '마비되다, 약화되다'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말하는 뇌혈관 장애에 의한 중풍인지는 확실히 말 할 수 없지만, 이 분은 어떠한 원인이었든지 신체의 많은 부분이 마비되어 혼자서 움직일 수 없는 환자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132] 이 중풍 병자는 왜? 중풍병에 걸렸을까요? 자기 몸을 잘 관리 안해서 그랬을까요? 유전적으로 이렇게 되기 쉬운 체질인데 운동을 안하고 먹기를 즐겨해서 그랬을까요? 혹시 큰 충격이나 사고로 인해서 그렇게 되었을까요? 아니면 자기 죄의 결과로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은 것일까요? 왜 일어난 것일까요?

어느 것인지는 모릅니다만 또 이 중풍병자를 보고 있는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어떠한 것일까요? 우리가 이 시간 이천년 전의 유대 사회로 자리를 잠시 옮겨 생각해 봅니다. 신앙심이 깊다고 여겨지는 유대인들은 모든 사건의 원인과 결과를 하나님이 이미 정하신 사건으로 받아들여 이해하는, 그래서 우리는 일어난 일을 받아들이고 해석할 수 있을

---

[132] 최대열, *성서, 장애 그리고 신학* (서울: 나눔사, 2015), 150-01.

뿐이라는 사고 방식을 지녔습니다. 이것이 보편화 된다면 사회적 통념으로 굳어지는 것이겠죠. 그렇게 되어서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거나 장애를 가진 자들에 대한 사회적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구약 성서를 읽다 보면 이렇게 굳어진 사회적 통념을 볼 수 있는데 특히 죄와 질병에 대해 그 사회가 보편적으로 가지게 된 시각들이 보입니다. 이러한 것을 통해 유대인들은 일반적으로 질병과 장애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고를 가졌습니다. 첫째, 질병과 장애는 그 사람이 지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다. 둘째, 질병과 장애는 그 고난을 통해서 인간의 믿음을 연단 시켜 장차 큰 인물로 사용키 위함이다. 또 셋째, 이러한 고난을 통해 그 사람의 성품을 개발하는 좋은 기회로 주어진 것이다. 아니면 넷째, 이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나타내는 일의 도구로 쓰시기 위함이다. 다섯째, 이 모든 것은 인간의 구원을 위한 고난의 과정이다. [133]

그 중에서 유대인들에게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생각은, 질병과 장애는 그 사람이 지은 죄의 결과로 바라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질병과 장애를 그 사람의 죄 때문이라고 보는 것은 유대인 공동체의 일종의 사회적 통념이었습니다.[134] 그럼 과연 질병과 장애를 그 사람의 죄의 결과로 바라보는 것이 옳을까요? 우리 예수님도 과연 그렇게 생각하셨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화 2) – 저의 이야기를 두번째 들려 드리고자 합니다. 대학 다닐 때 동급생 중에 장애인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분은 시각 장애인이었고 한 분은 휠체어로 이동하던

---

[133] Black, 32-42.

[134] 강일상, 144.

하반신 지체 장애인이었습니다. 두 분 다 수업뿐만이 아니라 이동할 때나 식사 때나 모두 동급생들과 어울려 4 년간을 열심히 공부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물론 수업 후 다음 교실로 이동하는 것이 스스로의 힘으로 어려웠습니다. 같은 건물 안에서 이동하는 것은 그래도 수월했지만 때로는 짧은 시간 안에 다른 건물로 긴 거리를 이동하여야 했습니다.

도맡아 도와주는 학생들도 있었지만 같은 강의를 수강하지 않을 때는, 누구든지 같은 강의실에 가게 되는 동급생들이 안내해 주고 휠체어를 밀어 주곤 하였습니다. 어떤 강의실은 6 층까지 업고 가야 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시각 장애인 동급생은 저와 함께 체육 수업을 수강하였는데 눈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수강할 수 있는 체육 수업은 수영이었습니다. 또 4 학년 무렵 졸업여행을 함께 떠나 여러 동기들이 힘을 합쳐 한라산 등반도 함께 해 냈습니다. 4 년을 함께 지내는 동안, 우리 학급에서는 그 누구도 이러한 일들을 특별한 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우리 삶의 한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자연스러운 일들 중의 하나로 생각했을 뿐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제 경험과 비슷하게 중풍병자와 함께 하고 있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중풍병자를 메고 예수님께로 나아온 온 사람들이죠. 여러분 이 사람들은 과연 누구일까요? 오늘 마가복음서 만이 아니라 마태복음, 누가 복음서 기자도 이 사람들을 그저 '사람들' 이라는 일반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친구들일 수도 있습니다. 친지들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같은 동네 이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와 같은 의학적 지식이 없는 2 천여년전 시절, 중한 병을 얻어 중풍병자와 같이 움직이지 못하는 병자는 무언가 하나님의 징벌을 받은 죄인이라는 인식이 큰 것입니다.

죄인으로 여겨지면 그가 속한 공동체에서 버림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죄인이라 여겨져서 공동체에서 버림 받은 중풍병자를 직접 메고 옵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이 중풍 병자가 죄인으로 여겨지고 아니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신들의 가족과 같은 이 병자를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와서 낫게 하는 것만이 최우선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이 행동은 마을 공동체에서 바라볼 때 죄인(중풍 병자)과 함께 하는 죄인들의 모임으로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들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가족과 같은 이 병자가 온전해 지는 것이 우리 모두의 기쁨이고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중풍병자를 메고 주님께로 나아왔습니다. 이것은 병으로 인해 고생하는 것도 힘든데 죄인으로 까지 낙인 찍혀 어려워진 삶을, 회복 시켜 일으키고자 하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주님께 나아갈 수 없으니 지붕까지 뚫고 내려놓는 이 행동 – 그들은 말로 표현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이 행위 자체가, 간구하는 말 이상의 간절함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중풍병에 걸린 환자를 살리고자 노력하는 애틋한 모습을 간직하고 있지만 이미 그 단계를 넘어서서 중풍병자와 이 사람들은 이미 한 몸입니다. 중풍병을 얻기 전부터 가족과 같은 관계 속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한 몸으로 함께 살아 왔습니다.

나의 가족이자 이웃인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우리들도 또한 받아 들여질 수 없습니다. 중풍 병자가 예수님께로 나아갈 때 우리의 행동이 필요한 것이고, 그의 받아들여짐의 여부는 곧 우리의 받아들여짐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렇기에 병자를 내려 보내서 믿음을 인정 받은 사람들과 죄 사함을 받은 중풍 병자는 달랐지만 이미 그들은 한 몸 이였던 것이죠. 그렇기에 그들도 예수님께 쉽게 접근 할 수 없었다는 것에는

중풍병자와 동일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접근 하기, 예수님께로 이동하기가 어려웠던 사건도 오늘 말씀의 중요 부분입니다.

접근하기 어려웠던 이야기, 이동하기 어려웠던 이야기 하나를 또 들려드립니다. (예화 3) – 지난 초여름 한울 장애인 센타에서는 순천 정원 박람회장과 순천만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저도 평범한 자원봉사자의 한사람으로 오랜만에 우리 자매의 휠체어를 밀어 주었습니다. 오후에는 사진으로만 보던 순천 만에 들렀습니다. 생태박물관을 먼저 둘러보고 이어서 코끼리 버스를 타고 순천만 자연생태에 관하여 살펴보는 것은 처음 방문한 저에게도 유익한 시간 이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자원 봉사활동을 통해서 이미 알고는 있었지만 또 새롭게 느낀 것은 휠체어를 밀고 다니기에 방해가 되는 높고 낮은 턱들이 왜 이리 많은가 하는 것이였습니다. 휠체어를 밀어보지 않았을 때에는 모르고 지나쳤던 장애물들이 곳곳에 존재하였습니다. 이리 저리 피하여 다니기도 하였고, 때로는 있는 힘을 다하여 밀어 넘어가기도 하였습니다. 정말로 비장애인으로 다닐 때에는 전혀 모르던 또 다른 세상이 존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나는 알지 못하고 당연히 여기는 것들이, 우리 장애인들에게는 커다란 장애물이 되는 것을 몸소 체험하였습니다.

또 한가지 느낀 점은 이날 참석하였던 모든 이들이 기대하였던 선상투어에서 있었습니다. 큰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선상 투어를 기대했는데 장애인들이 배를 타고 내리기에 적합한 구조도 아니었고, 이를 위하여 준비된 시설도 없었다는 것이죠. 결국 선상 투어는 포기하고, 관람차로 돌아보았지만 못내 아쉬움은 매우 컸습니다.

휠체어로는 다니기에 어려웠던 무수히 많은 장애물들을 생각하며, 또 기대했던 선상 투어를 장애인들이 타고 내리기에 불가능한 시설 때문에 포기했던 사건들을 생각해 보면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본문에는 중풍병자와 그를 메고 온 사람들이 예수께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4 절에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 갈 수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과연 누굴까요?

예수님께로의 앞자리를 차지하려고 일찍부터 자리 잡은 사람들, 말씀을 열렬히 사모하는 사람들, 종교적으로 가장 뜨거운 사람들, 나만 예수님을 만나보면 된다고 여긴 사람들, 무엇보다 예수에 대한 접근권을 미리 확보하여 그 권리를 누리고 있는 유지들? 혹시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막고 있는 사람들은 아닙니까? 중풍 병자가 예수께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은 자들이 혹 우리는 아닙니까?[135]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들은 대부분 중풍 병자의 이웃인 같은 동네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서로를 너무도 잘 아는 사이라는 겁니다.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은 이들 틈을 비집고 들어가려 했을 것이지만 죄인으로 치부 된 중풍병자와 함께 끼어들 틈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이웃은 보지 못한 채 나만을 위한 열심과 무지, 그 눈먼 열심과 편견이 때로는 주님께로 나아가는 다른 이의 발걸음을 막아서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에 대한 깊지 못한 지식과 질병을 죄라 여기는 독선적인 믿음이, 남을 정죄하고 무시하여 장애물을 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중풍병자를 막고 있는 그 무리들 중의 한 사람이 내가 아닙니까?

---

[135] 김홍덕, *장애신학* (대전: 대장간, 2010), 427.

5 절 말씀.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주님의 말씀은, 질병을 죄라 여겨 죄인으로 치부 되어 마을 공동체에서 버림받아 함께 하지 못하는 중풍병자를 향한 선포입니다. 죄인이 아니지만 죄인으로 여겨진 중풍 병자의 죄사함을 선언하여 이 중풍 병자도, 메고 온 사람들도, 또 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모든 이들이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끔 인도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선포의 말씀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은 이 중풍병자를 이렇게 부릅니다. “아들아!” (우리말 본문에는 작은 자야 라고 되어 있지만 헬라어 원어로는 아들아! 가 더 가깝습니다.) 이 표현으로 이제 죄인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로 위치를 격상 시켜 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로 불리워 져도 너희가 죄인으로 치부하겠느냐 라는 것이며 이제 아들이 되었으니 우리의 가족으로, 우리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이라는 선포입니다.

또한, 이 표현은 우리 주님께서는 중풍병을 앓고 있는 환자가 그 질병적 표현인 중풍 병자로, 환자로 또, 그 사람을 장애적 표현으로 부르는 것을 거부하고 “아들!”로 부름으로써 원래의 자리로 회복 옮겨 주시는 것입니다. 병자가 아니고 환자가 아니고 그저 우리의 가족이고 우리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삐뚤어진 사회 통념의 잣대로 죄인으로 취급한 이 사람을 부르는 ‘아들아!’ 이 한마디의 부름은 편견의 벽을 부수고 그 삶의 가치를 회복 시키는 선포입니다. 사회의 약자들을 율법을 빌미로 죄인으로 치부하고 또 그들을 공동체에서 배제시켜 자신들의 지배체제를 다져가며 계속하여 죄인들은 소외시키는 부조리한 사회에 대한 돌이킴의 선포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죄라는 것은 예수께로 나오는 이들을 막는 이데올로기와 막아섬이 죄입니다. 병든 것도 힘든 일이지만 이것이 죄로 여겨져서 공동체에서 분리되고 소외 된 중풍병자의 공동체로의 회복, 병든 이를 죄인으로 치부하여 분리 시키고 소외시킨 공동체의 죄 된 통념을 바로잡는 주님의 선포인 '아들아!' 이 선포의 외침은 우리 모두를 주님의 공동체의 일원으로 부르시는 사랑의 외침입니다. 사람들은 이 중풍병자를 죄인으로 보았고 그가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길목을 막아 섰지만, 우리 주님은 이 중풍 병자를 아들로 부르셔서 가족에게로, 친지들에게로, 친구들에게로, 이웃에게로, 마을 공동체로 다시 돌아 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은 또한 아들의 돌아옴을 통해 잃어 버린 양이 없는 온전한 공동체를 세우시는 주님의 큰 뜻의 실천이기도 합니다. 오늘의 이 말씀이 성령강림 후 여덟째 주일에 함께 나누는 말씀입니다.

C. 장애인 주일 설교를 위한 제언

내가 소속되어 있는 한국 기독교 장로회는 총회 지정으로 장애인의 날(4 월 20 일) 전 주일을 장애인 주일로 지키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내가 부산중부교회에 부임하기 전 시무하였던 모든 교회에서, 장애인 주일을 지키는 교회는 하나도 없었다. 부산 중부교회는 장애인 주일을 꼭 지정하여 지켰는데 장애인 주일 외에도 두 차례 더, 한울 총회주일(2 월), 그리고 한울의 날 주일(11 월)에는 평소보다 더 많은 장애인들과 예배 드린다. 한울 장애인 자활센타 졸업생들, 한울 장애인 어린이 집 졸업생들과 학부모들, 한울타리 회원들이 출석하여 함께 예배 드린다.

여기에서는 지난 4 년간 매년 지정된 세번의 주일 예배시의 설교 본문과 제목 현황을 통해 장애인들과 비 장애인들을 특별히 염두에 두고서 설교하였는가를 분석하고자 한다. 아래는 2011 년부터 2015 년까지 동안의, 지정된 세 주일의 설교 본문과 제목 현황이다.

2011. 11. 27(한울의 날) 마태 11:25-30 "겸손의 왕"   오후: 한울의 날 행사

2012. 2. 26(한울 총회) 삼상 24:16-22 "진정으로 돌이킴" 오후: 한울 총회

4. 15(장애인 주일) 시편 139:7-18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11.25(한울의 날) 삼하 3:22-30 "아브넬과 요압" 오후: 한울의 날 행사

2013. 2. 24(한울 총회) 요한 1:9-13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오후: 한울 총회

4. 15(장애인 주일) 시편 57:7-11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사오니"

11. 24(한울의 날) 민수기 13:30-33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오후: 보치아경기 [136]

2014. 2. 23(한울 총회) 이사야 38:18 "여호와께 기도하여" 오후: 한울 총회

4. 20(장애인 주일) 고전 15:12-20 "다만 이 세상의 삶 뿐이면"

11. 30(한울의 날) 마가 5:25-34 "누가 내 옷에 손을 다었느냐" 오후: 보치아경기

2015. 2. 28(한울 총회) 창세기 32:24-31 "하나님을 붙잡을 때" 오후: 한울 총회

4. 19(장애인 주일) 신명기 33:26-29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11. 22(한울의 날) 마가 2:1-5 "장애인 하나님" 오후: 한울의 날 행사

---

[136] 보치아는 그리스의 공 던지기 경기에서 유래한 것으로 국제 뇌성마비 스포츠 레크리에이션 협회(Cerebral Palsy-International Sports and Recreation Association : CP-ISRA)를 통해 처음 소개되었다. 그 후 각종 장애인 대회의 경기종목으로 채택된 경기이다. 장소와 공만 준비되면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경기이다.

위의 제시된 표를 살펴보면 2011 년부터 2014 년 장애인 주일 때까지의 설교 본문과 제목이 특별한 주일이라는 것과는 무관하였음을 보게 된다. 절기 설교(사순절, 부활절, 대림절)로 또는 계속 진행되어진 강해 설교가 이루어졌다. 2012 년 장애인주일은 광고조차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며, 2013 년 장애인주일에만 설교 예화가 장애인에 대한 이야기를 동영상으로 다루었다. 이때는 필자가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에서 수강하기 전이며 장애인과 설교에 대해서 깊은 고민과 의식이 없을 때였다.

2014 년 11 월 한울의 날 주일부터는 장애인들을 염두에 둔 설교를 하였는데 이것은 D.Min 수업을 시작하며 목회를 돌아본 시간을 많이 가진 뒤였다. 이러한 부분들은 설교만이 아닌 목회의 다른 부분에서도 확인되는데 2014 년, 2015 년 야외 예배를 한울 식구들과 함께 하였고, 2013 년 한울의 날 오후 행사로 하였던 보치아 경기를 2014 년 한울의 날 오후에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어울려 함께 하였다. 또 2014 년부터 여름 전교인 수련회에 한울 식구들을 초청하여 함께 모이며, 1 박 2 일의 짧은 기간이지만 수련회 프로그램 중에, 보치아 경기를 배정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 성도들이 함께 하였다.

2015 년 5 월 상호의존의 신학에 대한 예배학, 설교학 수업을 수강한 이후에는, 또 이 D.Min Project 를 준비한 이후로는 장애와 질병을 본문으로 선정한 설교[137]와 2015 년 11 월 22 일 한울의 날 주일에 행한 본문과 설교에서는 상호의존의 신학에 근거하여 설교하였다. 또, 2015 년 11 월 22 일 한울의 날 주일에는 예배 중에 한울타리 중창단의 특송과 지난

[137] 마가복음 2:1-12 "아들아" 2015 년 7 월 19 일 설교하였고 이 Project 에서 상호의존에 신학에 바탕을 둔 설교로 제시하였다.

1 년여를 돌아보는 동영상 상영, 이사장 인사 순서를 통해, 장애인들이 예배 순서의 일부를 담당하여 함께 드리는 예배를 센터와 협의하여 준비하였다. 예배 후 전교인이 함께 하는 공동 식사는, 교회에서 제공하였던 다른 주일과 달리, 한울 장애인 자활 센타 식구들이 준비하여 떡과 음료수와 함께 제공하였다.

오후 프로그램은 그 동안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던 보고의 형식을 지양하고, 지난 일년간 한울 장애인 자활 센타 식구들이 생활하였던 것을 중심으로 성도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일년간 생활 해 온 모습을 함께 보고(동영상), 함께 찬송 부르고, 듣고(일년간 월요 아침 예배 때마다 부른 찬송), 함께 만지고(한울 수업 시간을 통해 만들어낸 공예품), 함께 느꼈다(수업을 통해 익힌 학무도 시범).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목회자가 상호의존의 신학에 바탕을 둔 목회를 열어 간다면 성서 본문 선택이나 설교, 예배의 순서, 기타 교회 내 행정 시스템, 시설 관리, 보완적인 모든 부분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루어 갈 수 있으며 신학적으로도 온전하고 건강한 공동체를 형성해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Chapter VI

결론

블랙은 교회 내 장애인들도 역시 예배를 통해 위로와 지원을 필요로 하며 또한 목회자로부터 위로를 받기 위해, 또 자신들의 삶 속에 일어난 여러 가지 질문들에 대하여 답변을 듣고자 교회를 찾아온다고 말한다.[138] 그러나, 문제는 대부분의 교회와 목회자들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이들을 맞이하는데 어색하다는 것과 이들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하고, 어떻게 함께 해야 하는지 잘 알지 못한다는 것이다.[139]

이것은 목회자의 설교에 있어서 더욱 중요한 부분이다. 또한 목회자들이 자주 설교하는 본문 중의 하나는 복음서의 치유 이야기이다. 이 치유 이야기들은 대부분 질병과 장애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목회자의 올바른 인식의 부족과 성서 본문의 문자 자체에 치우친 해석과 무지 때문에 본문의 의도와는 다르게 장애인에게 상처가 되거나 종교적 굴레를 씌우는 설교가 될 수 있다. 이것은 비장애인들에게도 그릇된 신학적 견해에 젖어 들게 만든다.

이러한 견해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교회 내에서도 장애라는 기준으로 구별 시켰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상호간에 관계를 맺고 있으며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고 있다.[140] 교회

[138] Black, 28.

[139] Black.

[140] Black, 53.

안에서 흔히 쓰이는 가족이나 공동체라는 표현은 우리가 다른 지체들과 서로 의존하는 존재이며 서로가 서로를 돌보는 관계라는 표현이다.[141]

목회자가 어떤 신학적 관점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은 그의 목회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이제 목회 현장에서 장애와 질병에 대한 온전치 못한 신학적 이해와 인식의 변화를 필요로 한다. 무엇보다 목회자의 설교에서 장애와 질병에 대한 그릇된 접근과 표현을 벗어나야 한다. 이를 위해서 관계지향적인 상호의존의 신학에 바탕을 둔 설교가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전통적으로 다루어진 장애와 질병에 대한 성경 본문의 관점들을 비판적으로 다루었다. 그리고 이러한 교회의 전통적 해석이 교회 내에 장애인에 관한 그릇된 신앙관을 심게 된 것에 대해서도 다루었다. 교회내의 이러한 신앙관의 탈피를 위해서는 목사의 설교부터 재고되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이어서 관계지향적인 상호의존의 신학에 대해서 살펴보며 필자의 설교 세편을 선별하여 분석하였다. 이 연구가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설교제목에서부터 상호의존의 신학적 관점을 염두에 두고 설정하여야 한다. 필자는 본문 구절 중에서 습관적으로 제목을 설정한다. 장애와 질병을 담고 있는 본문들은 대체로 이야기를 담고 있다. 그 이야기 속에 있는 대화, 행동, 인물 등 가운데서 제목을 설정하는 것도 좋다고 여긴다. 물론 자신의 신학적 관점을 형상화한 제목을 설정할때에 상호의존의 신학적 관점을 잊지 않고 염두에 둔다면 얼마든지 좋은 제목을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이

[141] Black, 50.

연구에서 필자의 설교 제목 설정에 있어서도 관심을 두기 전후를 비교했을 때 변화가 있는 것을 통해 이야기 할 수 있다.

둘째, 설교 작성시부터 나의 설교가 관습적이고 전통적 관점에서 벗어 나야 함을 인식하며, 용어 사용과 예화 사용 등에 주의를 기울여서 상호의존의 신학적 방향을 바라본다면 누구나 여기에 합당한 설교 결과물을 만들어 낼 수 있다. 특히 원문 번역과 해석에 있어서 충실하다면 그 결과물은 더욱 질 높은것이 될 것이다.

이상과 같이 나의 연구는 나의 설교 분석을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의식 변화를 이루고 더 나아가 나의 목회 현장에서 이들의 상호의존의 의식을 이루는데 관심을 기울였다. 교회 내에서 조차도 장애인 차별적 문화 속에서 서로가 서로를 일그러진 의식으로 바라보던 교회공동체가 건강하고 온전한 공동체를 이루어 가기를 소망한다. 이것은 단순히 편안한 의자에 앉아서 상호의존의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 하고 가르치는 것으로 이루어 질 수 없으며 한 시간이나 하루의 연습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인 연습을 통해 몸이 알고 기억하게끔 만들어야만 한다.[142] 즉 상호의존의 삶을 늘 살아가야 가능 한 것이다.

이것이 개인의 의식 속에만 자리 잡는다고 해결 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 사회 속에 구조적인 또 제도적인 장벽 자체가 존재한다면 개인 의식의 변화만으로 되지 않는 것이다. 그렇기에 내가 시무하는 부산 중부교회에서는 여러 교회 기구 내에서 비장애인뿐만이 아니라 장애인도 자신들이 잘 할 수 있고 관심 있는 분야에서 교회 일을 감당 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

[142] Kim-Cragg, 175.

있다. 성가대원, 교회학교 교사도 원하는 사람 누구나 할 수 있도록 신청을 받아 사역하고 있으며 신도회장도 순서가 되면 동일하게 감당하고 있다.

현재 두 여신도회중 한곳의 여신도회 회장이 장애인이다. 예배 순서 중 성도 중에서 시편 봉독을 하는 순서가 있는데, 장애인 성도의 차례가 되어 강대에 오르기가 어려울 경우 마이크를 맨 앞 회중석에 설치하여 성경 봉독을 하도록 하였다. 또, 여신도회 헌신 예배 중 장애인 회장이 강단에 올라 사회를 보기 어려울 때, 강단 밑에 의자와 책상을 따로 설치하여 예배를 인도하도록 하였다. 이에 대해 성도들 모두 어색해 하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예배 드리고 있다.

교회 기구 중에 10 개의 부서가 있는데 그 중 방송 부장과 홈페이지 관리부장, 두 곳이 장애인이다. 필자는 목사로서 예배를 인도하지만 마이크, 스피커, 프로젝트, 모니터를 관장하는 방송 부장의 도움 없이 예배를 진행 할 수 없다. 예배 진행에 관하여서는 목사인 필자도 또 교회도, 방송부장에게 전적으로 의존해야만 한다. 홈페이지 관리부에서는 목사의 설교를 녹음, 편집하고 행사 때마다 사진을 편집하여 홈페이지에 매주 업데이트 한다. 담임목사 외에는 전임 목회자가 없는 우리 교회의 상황으로는, 이들의 도움 없이는 차질 없이 목회를 해나가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그들은 목사인 필자에게 의존하고, 필자는 목사로서 그들에게 의존한다.

필자는 매주 월요일 오전 10 시 한울 장애인 자활 센타에서 발달장애인들을 비롯한 전 직원들과 함께 예배 드린다. 몇 달이 지나고 나서부터는 목회자의 공식적인 휴일인 월요일 아침에 또 예배를 인도하는 것이 그리 기쁜 것만은 아니었다. 그러나 '정신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보통 환영, 경탄, 자발성, 솔직함이라는 자질을 소유하고 있다고 믿는다'는 라르쉬 공동체의 헌장처럼 이들은 나를 매주 열렬히 환영하며 맞이한다.[143] 멀리서 얼굴이 보이자 마자 손을 들고 소리를 지르며 뛰어와서, 나를 안고 이렇게 매번 뜨겁게 맞이 해주는 곳이 없을 것이다.

이제는 내가 예배를 인도하며 이들에게 말씀을 베푼다는 것보다, 목회 현장에서 주일을 보내며 피곤해진 나를 위로하여 새 힘을 일으켜 주는 곳이 되었다. '장애를 가진 이들은 우리가 예수께 마음을 열고 더 많이 사랑하도록 도와 줄 수 있습니다. 함께 사랑의 공동체를 일구고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는 법을 배우도록 도와 줄 수 있습니다.'[144] 우리는 서로 주고 받고 있는 내용물이 다를 뿐 서로에게 주고 있고 서로에게 받고 있으며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한발자국 더 나아가 바라본다면 상호의존의 삶은 단순히 개인 의식의 변화, 교회내에서의 변화 시에만 한정 지을 수 없다. 당연히 사회 정치적 책임 문제에 있어서 교회가 할 일에 대해서 감당해야만 한다. 이 프로젝트를 준비하는 중에 한울 장애인 자활 센타 식구들과의 잦은 교류와 대화 중에 '장애인 이동권 연대'를 통해 한울 센터 식구들이 타 센터와 연대하여 활동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때마다 이슈로 거론되는 내용들이 다르기는 하지만 장애인의 이동권을 확보하기 위한 교통편의 제공(두리발 요금 개선, 저상버스 구조 개선, 고속버스내 휠체어 진입), 장애인 활동 보조원 지원 및 지원금 인상 및 확대 등의

---

[143] Henri J. M. Nouwen, *Adam: God's Beloved 아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trans. 김명희 (서울: 한국기독학생회출판부, 1998), 27.

[144] Jean Vanier, *Jesus, 'the Other' 다름 또 하나의 선물*, Trans. 윤성희 (서울: 바오로딸, 2015),15.

문제들이 거론되고 있다.[145] 이것은 함께 사는 사회를 이루기 위한 권리의 끊임 없는 외침들이다.

또한 이번 정부하에서 매년 줄어드는 장애인 편성 예산의 문제라든지, 2016 년 4 월 13 일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그동안 장애인의 권익을 대변하여 오던 장애인 몫의 비례대표 의원의 공천이 이번에는 그 어느 정당에서도 당선 안정권 안에 공천 하지 않은 상황들은 이 사회가 약자에 대한 배려가 오히려 역행 하고 있는 모습으로 확인된다. 이러한 문제들을 접할 때 장애인들의 문제는 장애인들 스스로 알아서 해 보라는 것이 아닌 교회 공동체가 함께 문제 제기에 동참 해 주고 함께 외쳐주고 그 자리에 함께 있어 주는 것이 상호의존의 삶을 살아내는 교회 공동체의 진정한 모습일 것이다. 이것을 자각한 목회자의 건강한 설교와 교회 공동체의 깊은 노력이 함께 힘을 합칠 때, 그리고 상호의존의 삶을 모두가 살아나갈 때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이룰 뿐 아니라 건강한 사회 공동체를 이루어 갈 수 있게 될 것이다.

---

[145] 두리발은 장애인 택시이다. 부산지역의 두리발 요금이 가장 높은 수준이며 기사의 친절 문제도 개인에 따라 큰 격차를 보임으로서 이용에 불편함을 느낀다고 말하고 있다. 저상 버스도 휠체어 진입을 위하여 설계하다보니 휠체어를 타지 않는 하체 장애인은 오히려 불편하여 예전 버스로 골라타고 있으며 고속버스는 휠체어 진입이 불가능하여 이용할 수 없다고 말한다.

Bibliography

한서

강일상. *마가복음의 기적 이야기.*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7.

권진숙. *관계 문화 이론.* 서울: 신앙과 지성사, 2013.

김균진. *基督敎組織神學 II.* 서울: 연세대학교출판부, 1989.

김영선. *관계신학.*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2.

김영천. *질적연구방법론 I Bricoleur*. 파주: 아카데미프레스, 2013.
_____. *질적연구방법론 II Methods.* 파주: 아카데미프레스, 2013.
_____. *질적연구방법론 III Writing.* 파주: 아카데미프레스, 2013.
_____. *질적연구방법론 IV Case Studies.* 파주: 아카데미프레스, 2013.

김이곤. *구약성서의 고난 신학*. 서울: 한국 신학 연구소, 1993.

김일권. *사랑 받아야 할 아름다운 이름 장애인.* 서울: 글로리아, 2003.

김홍덕. *장애신학.* 대전: 대장간, 2010.
_____. *교회여 장애인에게 세례를 베풀라.* 대전: 대장간, 2013.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사회봉사부 장애인신학준비위원회, ed. *장애인신학.*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15.

손봉호. *약한쪽 편들기.* 서울: 밀알 선교단, 1991.

안교성. *장애인을 잃어 버린 교회.* 서울: 홍성사, 2003.

안상님. *여성신학이야기.*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2.

양동춘. *예수 사랑 장애인 사랑.*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1997.

오세란. *교회의 사회복지 참여하고 실천하기.*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1.

이계윤. *장애인 선교의 이론과 실제.* 안양: 한국특수교육 연구소 출판부, 1996.

_____. *예수와 장애인.* 서울: 밀알 선교단 출판부, 1994.

이준우. *우리가 아끼고 사랑해야 할 사람들.* 서울: 여수룬, 1984.

제자원, ed. *마가복음 1-9*, 옥스퍼드 원어 성경 대전 vol. 104. 서울: 제자원, 2003.

최대열. *성서, 장애 그리고 신학.* 서울: 나눔사, 2015.

한국기독교 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 장애인소위원회. *장애 너머 계신 하나님.*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2.

한성기. *하나님의 가족-장애인과 교회.* 서울: 도서출판 잠언, 1997.

홍기영. *인간의 문화와 하나님의 선교.* 서울: 대한 기독교서회, 2000.

역서

아라이 다까시. *장애인 문제와 교회의 책임.* Translated by 박천만. 서울: 도서출판 알돌기획, 1993.

Black, Kathy. *A Healing Homiletic 치유설교학*. Translated by 이승진. 서울: CLC, 2008.

Newman, Gene and Joni Eareckson Tada. *장애인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Translated by 홍원팔. 서울: 도서출판 알돌기획, 1994.

Long, Thomas G. *The Witness of Preaching* 증언하는 설교. Translated by 이우제 and 황의무. 서울: CLC, 2005.

Nouwen, Henri J. M. *Adam: God's Beloved 아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Translated by 김명희. 서울: 한국기독학생회출판부, 1998.

Richard Osmer. *Practical Theology: An Introduction 실천신학의 네 가지 중심 과제.* Translated by 김현애 and 김정형. 서울: WPA, 2012.

Sweet, Leonard. *Out of the Question... Into the Mystery 관계의 영성*. Translated by 윤종석. 서울: IVP, 2011.

Vanier, Jean. *Jesus, the Gift of Love 장 바니에의 시보다 아름다운 예수전*. Translated by

이현주. 서울: 나무 생각, 2013.
______. *'the Other' 다름 또 하나의 선물*. Translated by 윤성희. 서울: 바오로딸, 2015.

저널 논문 및 저서

김종희. "교회 출발로서의 장애인 신학." In *교육목회* vol. 277 (2000): 36-39.

박정세. "고난의 문제." In *현대인과 기독교,* edited by 종교교육위원회, 237-59. 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1989.
______. "장애인 선교 서설 -장애인에 대한 성서 및 신학적 이해를 중심으로." *현대와 신학* vol. 22 (1997): 148-72.

채은하. "장애와 종교: 문화적 고통과 치유." In *신학과 사회* vol.19 (2005), 121-41.
______. "장애와 한국교회." In *현대종교* no.393 (7/8 2007), 58-66.

Kim-Cragg, HyeRan."A Christian Feminist Theological Reflection on Economy of Life" *The Ecumenical Review* vol. *67,* no. 2 (July 2015):170-76. http://onlinelibrary.wiley.com/doi/10.1111/erev.12148/full (Accessed November 10, 2015).
Kim-Cragg, HyeRan. "To Love and Serve Others (or to Be Loved and Served)." In *Intercultural Visions: Call to be the Church,* ed. Rob Fennell, 23-32.Toronto: United Church Publishing House, 2012.
Otieno, Pauline A. "Biblical and Theological Perspectives on Disability: Implications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y in Kenya." *Disability Studies Quarterly the First Journal in the Field of Disability Studies* vol. 29, no. 4 (2009). http://dsq-sds.org/article/view/988/1164 (Accessed September 15, 2015).
Roberts, Alastair. Crooked Healing: Disability, Vocation and the Theology of the Cross. January 22, 2013. https://alastairadversaria.wordpress.com/2013/01/22/crooked-healing-disability-vocation-and-the-theology-of-the-cross/ (Accessed September 15, 2015).
W.C.C. Geneva, ed. *The Section Reports of the W.C.C. 세계교회협의회 역대 총회 종합 보고서.* Translated by 이형기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3.

부록

부록 1- 설교 원고1 (2012년 저녁 기도회)

제목: 여리고의 맹인   본문: 마가복음 10:46-52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에서는 20:29-34절에 여리고의 두 맹인이라는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고 누가복음에서는 18:35-43절에 동시에 기록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리고 길거리에서 먼지를 마시며 오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천대와 멸시를 받으면서도 한 두 푼 구걸하여 먹고 살던 거지 맹인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 눈을 뜨는 말씀입니다. 그의 직업은 거지이고 형편은 눈먼 맹인이라는 비참한 형편이지만 그러한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흑암이 광명으로 바뀌고 구걸하던 거지가 예수님을 따라 나서는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무명의 거지가 공관복음서에 모두 등재되는 영광과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그 장면을 일게 되는 유명한 사람이 됩니다. 정말로 왜 그럴까 하는 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오늘밤에 함께 나눌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예수께서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차이는 당시에 여리고는 구 여리고와 새로 헤롯 왕이 신축한 신 여리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 여리고는 헤롯 왕이 새로 건설하여 자신의 겨울 궁까지 건설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신 여리고와 구 여리고 사이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밤 이 바디메오의 신앙의 모습과 그를 위하시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밤의 마음의 양식을 삼으시기 바랍니다.

첫째 우리는 바디메오가 어떠한 사람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는 말 그대로 가난한 맹인 거지입니다. 바디메오는 처음부터 아주 비참한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소개되고 있는데, 만약 그가 어릴 때부터 눈먼 맹인으로 버림받은 사람이라면 그의 아버지까지 성서에 소개될 리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 맹인 역시 마땅한 이름을 가지지는 못한 사람일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가 아마 살아가는 중에 환란과 어려움으로 인해 이와 같은 지경에 이르렀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그는 이제 앞이 보이지 않는 눈으로 비참한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고 좌절하여 그저 하루 하루의 삶을 던져주는 동전 몇 잎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환경을 원망하거나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그에게 귀가 밝은 것은 오늘 이 사건을 위함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눈이 보이지는 않았지만 그에게는 이 세상의 많은 소문을 지나다니는 사람들을 통해서 구 여리고와 신 여리고 사이에 앉아 있으면서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위치에 앉아 있는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이 맹인은 그 중에서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문둥이를 깨끗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더구나 죄인을 구원하시며 우리와 같은 비천한 자도 외면치 않으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귀한 소문이 많은 소문 속에서도 내 귀에 들려왔습니다. 이제 그 귀한 소문의 주인공인 예수님이 나와 가까운 거리를 지나신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는 이 소문을 통해서 더 이상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삶에는 이제 희망이 생겼습니다. 이 분만 붙잡는다면 내가 눈을 뜨리라는 그 마음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여기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의 처지는 어떠하십니까? 이 바디메오보

다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육신적으로는 소경이 아니고 부유하다 하더라도 영적으로는 바디메오보다 더 가난한, 눈 까지가 아니라 귀까지 들리지 않는 분은 아니십니까? 바디메오는 육의 양식을 지나다니는 사람들에게 겨우 구걸하여 먹고 살지만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주시는 영의 양식을 남에게 겨우 구걸하여 먹고 있지는 않습니까? 눈이 보이지 않을뿐더러 이제 예수님에 대한 말씀까지도 듣지 못하는 귀까지 들리지 않는 상태는 아닙니까

바디메오는 가장 비참한 상태에 있었지만 간절한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에게 부와 명예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가 이 시간 외친 것은 무슨 외침이었지요? 보게 해달라는 것입니까? 눈이 뜨게 해달라고 외쳤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이지요? 무엇이라고 외치고 있지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들은 자신을 불쌍한 사람이라고 여기십니까? 이 시간 자신을 불쌍한 사람이라고 생각지 못한다면 바디메오는 눈은 안 보였지만 귀는 들리는 사람입니다만, 자신의 처지를 모른다면 눈은커녕 귀마저도 들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더라도 바디메오처럼 절박함이 없거나 그 소문이 나와는 상관없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없는 소경이자 귀머거리일 뿐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은 예수님을 보지 못하더라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귀로 들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바디메오는 주님을 향해서 부르짖습니다. 자기를 불쌍히 여겨 달라고 부르짖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께 나를 불쌍히 여겨 달라고

부르짖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고통을, 나의 어려움을 외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르짖음을 듣고 있던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우리의 삶이 이렇습니다. 어렵게 어렵게 이제 눈이 멀어 보이지 않지만 귀 만큼이라도 들리게 노력하여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외칠 때에, 이 세상은 그냥 내버려 두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자 할 때 방해하는 주변 환경으로 만나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방해물들은 나 자신의 이성이 될 수도 있고, 내 직업이 될 수도 있고, 친구들이 될 수도 있고, 남편이 될 수도 있고, 가정이 될 수도 있고, 교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바디메오에게 닥친 어려움과 같이 많은 사람들이 외치지 말라고 시끄럽다고 예수님께서는 너와 같은 하찮은 사람은 만날 수 없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어떻게 했지요? '더욱 심히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눈먼 맹인으로 지금껏 살아왔습니다. 많은 일들 중에서 단지 내 귀만큼은 열려 있어서 이리 저리 오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많은 소문을 들었습니다. 허황된 소문도 있고 전쟁의 소문도 있고 기쁜 소식도 있지만 그 중에서도 내 귀를 솔깃하게 하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앉은뱅이를 일으키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귀신들린 자를 쫓아내신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 언젠가 그분을 뵐 수만 있다면 나의 두 눈을 고쳐 주실 텐데. 다른 마음은 없습니다. 나의 평생의 간절한 소원 이 두 눈만을 고쳐 주실 수 있으실 텐데 라는 그 간절함이 존재 할 뿐입니다.

그런데 이게 왠 소식입니까 그분이 앉은뱅이를 일으키고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신다

는 그분이 지금 나의 앞을 지나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기회는 내 평생에 다시는 없을 것입니다. 이 기회를 놓친다면 다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도 없고 만날 수 없다면 내 평생의 유일한 소원인 두 눈을 고친다는 것은 더 이상 바랄 수 없습니다. 또 다시 먼지 나는 이곳에 앉아 온갖 욕을 먹어가며 한푼 두 푼 얻어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내 두 눈이 나을 수만 있다면 나에게 잠잠하라 외치는 것이 나를 더 이상 누를 수 없습니다. 더 크게 예수님을 찾아야 합니다. 더 넓게 외쳐야만 합니다. 그리고 바디메오는 그의 외침을 예수님께서 듣게 만들었습니다.

이 시간 성도 여러분! 어떠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그저 교회 제직이니까 그래도 내가 권사인데 금요 기도회도 나가야지 늘 나가는 기도회니까 또 나가지 뭐! 그것이 아니라 모두 다 소중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나오시지 않았습니까?

바디메오처럼 이 시간이 지나면 다시는 내 눈은 뜨임 받지 못한다는 그 간절함으로 기도하십시오. 이 세상의 어떠한 방해와 꾸짖음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이 시간 주님을 만나지 못한 다면, 나는 죽을 때까지 눈먼 맹인으로, 안 들리는 귀머거리로 살아가야만 한다는 그 절박함으로 기도하십시오.

세상적인 방해나 꾸짖음에 수치심을 느끼고 바디메오가 잠잠하라는 소리에 정말로 잠잠하고 말았다면 그는 이 시간 고침을 받지 못했을 줄로 압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간절한 소망을 가진 사람은 세상적인 어떤 방해나 꾸짖음에 수치나 두려움을 느끼지 못합니다. 무익한 환경이나 장애에 쉽게 지배를 받는 자는 하나님께 상달 되는 기도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다시 한번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은 무리 중에서 들려오는 한 소리를 듣기 위해서 걸음을 멈추셨습니다. 혈루증을 앓던 여인을 위하여 회당장의 집으로 향하던 걸음을 멈추셨던 주님은 말씀을 듣기 위해서 기다리던 무리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디메오의 외침에 관심을 보이시기 시작합니다. 긍휼을 간구하는 자의 소원을 외면치 않으시고 귀를 기울이십니다. 이 시간 모인 여러분들은 간절함으로 예수님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 외침에 가던 걸음을 멈추시고 바디메오를 찾으셨던 것처럼 우리의 간구에 귀 기울이실 줄로 믿습니다. 외치지 않으면 들으시지 아니하십니다. 간절함으로 주님을 불러 예수님이 우리의 곁에 머물러 서시게 할 수 있는 믿음이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주님께서 부르심을 안 바디메오는 어떻게 행합니까? 50절 겉옷을 내어 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이제 바디메오는 지금까지는 자신에게는 꼭 필요했지만 이제는 다시 필요하지 않은 것을 벗어버리고 벌떡 뛰어 일어나 주님께로 나아갔습니다. 여리고 가는 길에 구걸하며 살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 겉옷입니다. 눈도 보이지 않기에 비가 오더라도 몸을 지켜야 되고 먼지가 나면 몸을 감싸야 되고 언제 어떤 상황이 닥칠지 몰라서 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걸치고 있어야만 하는 것이 겉옷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부르시기에 이러한 것은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눈을 고쳐 주실 것이기에 이제 겉옷이 따로 필요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에는 예수님이 불러주시면 나의 부도, 명예도, 이성도,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주님께로 나아감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디메오처럼 나의 겉모습을 치장하는 나의 번지르르한 겉옷을 벗어버리고 오직 나의 간절함으로 구하는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께로 달려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에 이제 예수님은 묻습니다.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제 바디메오가 무어라 답하지요.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처음에 예수님을 부르기 위해서 외칠 때 왜 눈을 뜨게 해달라고 외치지 않았을까요? 그때는 아직도 겉옷을 입고 있을 때입니다. 예수님께 구하는 외침을 할 때에도 겉만 번지르르하게 외식적으로만 구했을지도 모릅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얼마나 철학적이면서도 멋있는 말이 됩니까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많은 의미를 함유한 말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는 이러한 모양새마저도 모두 벗어버리고 순수하고 소박하게 자기의 소원만을 절실히 구하는 한 인간의 약한 모습의 기도를 보여줍니다.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솔직한 기도입니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 시간 이제는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가 아닌 보기를 원하나이다 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바디메오에게 예수님은 무어라 말씀하셨습니까? 네가 이제 불쌍한 사람이 되지 않을 것이다. 네 눈을 뜨거라. 아닙니다.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이 눈은 고쳐 주시지 않으시고 구원만을 선포하셨을까요. 아니지요. 소박하고 진실된 간구를 드린 소경에게 하신 은혜의 말씀입니다.

간절히 외친 바디메오 주변 사람들이 꾸짖어도 더욱 더 크게 절실하게 외쳐 된 바디메오. 그리고 자기의 겉옷을 벗어버리고 주님께 달려 나가 오로지 한가지 자신의 가장 간절한 소원인 보기만을 원했던 바디메오에게 구원의 말씀까지도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예수님을 길에서 좇는 찬양의 의인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인 성도 여러분! 바디메오처럼 간절함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겉옷을 벗어버리는 모습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 드릴 때 불쌍히 여겨 달라는 외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진실된 기도, 보게 해달라는 소박한 기도로 이 밤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록 2 - 설교 원고2 (2013년 9월 29일 오후 예배)

제목: 수로보니게 여인 이야기 본문: 마가복음 7; 24-30

오늘 본문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그의 소원을 들어 주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수로보니게 여인은 유대인이 멸시하는 이방 여인이요 더러운 귀신 들린 딸을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은 겸손했고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녀는 자신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믿음의 말에 감동을 받으시고 그녀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그녀의 딸을 고쳐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당시 유대인들이 가진 외식적이고 형식적인 믿음에 대한 경계의 말씀으로 진실하고 간절한 한 믿음의 표현이 얼마나 중요한가 깊이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게네사렛 땅을 떠나 두로 지경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자신을 숨기셨습니다. 이 당시 예수님은, 갈릴리 전도를 마무리 지으시고 앞에 놓여 있는 십자가를 마음으로 준비하시며, 제자들을 중심으로 조용한 시간을 갖고자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대한 소문이 이미 이웃 이방 땅에도 널리 퍼져 있어서

자신을 도저히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는 어디서나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5, 26 절에 보면 한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와서 그 발 앞에 엎드려 자기 딸에게서 귀신을 좇아 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이 여인은 헬라인인데, 수로보니게 족속이었습니다. 여기에 수로보니게 족속이라는 말은 수리아 나라에 속한 페니키아 인이라는 뜻입니다. 페니키아 인은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에 대해 적대적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들을 이방인으로서 개같이 취급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 여인은 문화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는 귀신 들린 어린 딸이 있었고, 이 여인은 자신의 어린 딸을 고치기 위해 별별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온갖 노력을 다해봐도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어린 딸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더러운 문둥병자를 깨끗케 하시고, 중풍병자를 일으키시고, 더러운 군대 귀신인 거라사 광인을 고치시고,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다시 살리시고, 오병이어로 오천명이 먹고 12 바구니가 남았다는 말을 들었을 것입니다. 이 여인은 고통과 절망 가운데에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서 소망을 생각하게 되었고 예수님께 나아가겠다는 소원이 생깁니다. 예수님께 가기만 하면 귀신 들린 어린 딸이 나음을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문을 듣자 곧 와서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렸습니다.

여기에서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아 오기까지, 그리고 그 발 아래 엎드리기까지 결코 쉽지 않은 길로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이방 민족인, 수로보니게 족속의 여인입니다. 유대인들이 개 취급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예수님을 통하여 자신의 어린 딸을 구해 보려는 이 한가지 마음을 가지고 모든 어려움, 수치심을 버리고 예수님께 나아와 그 발 아래 엎드려 간청합니다.

마태복음 15:22 에 보면 이 여인은 예수님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칩니다. 여인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자신의 구주 되심을 고백합니다. 자기를 불쌍히 여겨 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옆에서 보는 제자들 조차도 안스러울 정도로 소리치며 간청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27 절에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많은 어려움 가운데 이 시간 이 자리에 엎드린 이 여인에게 너무나 충격적인 말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자녀의 떡은 선민 이스라엘 백성의 것을 개들에게, 즉, 불결하고 수치를 모르고 탐욕스러운 이방인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는 예수님의 말씀은 어려움을 무릎 쓰고 예수님께 달려온 이 여인에게는 너무도 지나친 말이라고 여겨집니다. 세상 만민의 구주로서 어찌 그럴 수가 있는가 생각됩니다. 정말 이 말씀은 예수님답지 않은 말씀으로 들립니다.

예수님을 자기의 주님으로 모시고, 자기의 구주로 고백하며,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린 이 여인을 향해, 자신을 위해서도 아니라 귀신들린 어린 딸을 위해 지극한 모성애로

엎드리는 여인을 향해 내뱉는 예수님의 말씀은 이 여인에게 도저히 참기 힘든 모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람이 가장 참기 힘든 것은, 도움을 받으러 갔다가 사람들 앞에서 무시를 받고 천대 받는 일입니다. 특히 자신의 구주로 모신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무시와 멸시를 받는 다는 것은 더욱 견디기 힘든 일일 것입니다. 예수님도 어느 유대 사람과 다름없다고 생각되면 이것은 정말 참기 어려운 일입니다.

찬송가 280 장 가운데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가사처럼, 예수님께서 나를 박대하시면 나는 갈 곳이 없습니다.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마음이 너무 상하여 딸을 고치고자 하는 마음도, 예수님을 향한 믿음도 사라지고 원망 불평하는 사람이 되기 쉬웠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당신의 입으로 여인을 개 취급했음으로, 미친 개처럼 달려들어 자신의 가슴속에 맺힌 한을 예수님께 풀며 개판을 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여인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 진정 이 여인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천대하는 말일까요? 여인의 믿음을 실족케 하는 말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여인을 실족시키고자 함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 여인의 믿음을 견고케 하시고 그녀를 축복 하시기 위해 그 믿음을 연단하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첫째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다는 하나님의 주권을 명백히 심어 주시기 위해서 입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와 주권으로서 이스라엘을 택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택한

이스라엘을 통하여 온 세상을 구원코자 하는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이요 역사의 원칙임을 널리 알리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이 여인이 개와 같이 취급을 받아 마땅한 이방 여인임을 인정하게 하시려 함이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자들입니다. 우상을 섬기고, 개같이 음란하며, 개같이 싸우고, 개같이 토했던 것을 다시 먹을 정도로 더럽고 추한 생활을 합니다. 개는 주인이 주는 것만 받아 먹을 수 있습니다.

구원이란 결코 인간의 행위에 기초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자기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 만을 구하도록 도와 주신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말씀은 냉정하게 보이지만 이 여인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도록 여인의 믿음과 열심을 자극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 28 절에 보면 "주여 옳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고 여인은 대답합니다.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시인합니다. 여인은 자신이 아무 자격이 없는 비천한 개에 불과함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조금도 반발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도 불평 하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힘든 말씀이라 할지라도 '예'로 응답했습니다. 이 여인은 '아니오'가 없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모습을 바로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도 이 여인처럼 개 같은 인생들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만 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인 되신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 해도 우리는 아니오 라는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 라는 대답만 하여야 합니다. 이 대답은, 주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일 때 내 자신이 어떤 존재 인가를 알 수 있는 대답입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첫째로 딸을 향한 간절한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가 딸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일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딸이지만 흉악한 귀신들린 딸을 사랑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인은 딸에 대한 사랑 때문에 어떤 수치와 모욕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둘째로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발견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치 않을 때 교만하여 원망하고 불평하며 하나님께 대적하게 됩니다. 그리고 절망하게 됩니다.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이스라엘이 받은 은혜를 인정했습니다.

셋째로,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자기를 발견했습니다. 죄짓고 타락한 인간의 실상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비천한 죄인인가 하는 모습을 깨닫지 못할 때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여인은 거절하는 듯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낙심하거나 뒤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자신이 개 같은 자라고 절망과 낙망에 빠지거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자신이 개같이 비천하고, 은혜 받을 수 없고, 자격 없는 사람임을 발견하였습니다.

넷째로, 이 여인은 주님께 은혜를 구하기 위해 자기의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자기를 주님 아래 내려 놓았습니다.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말함으로써

자신에게는 다만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상 아래서 부스러기를 얻어 먹으려는 개와 같이 간절하게 주님의 은혜와 긍휼만을 간구하였습니다.

사람이 겸손히 주님의 은혜를 구하기만 하면 무한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데도, 자기 중심, 자기 위주를 꺽지 못해 은혜의 세계, 믿음의 세계의 문턱에서 넘어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자기 중심, 자기 위주를 내려 놓고 믿음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 앞에는 무한한 은혜와 축복의 세계가 펼쳐집니다.

이 여인은 이방 여인으로서 지성도 갖추었고 자존심도 강했을 겁니다. 그러나 여인은 자존심을 내리고 겸손하게 은혜만을 구했습니다. 예수님의 모욕적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넘겼습니다. 이 여인은 믿음으로 사사로운 감정을 이기고 자신을 이겼습니다.
과거 우리는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을 모르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며 멸망할 수밖에 없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탐욕, 정욕, 거짓으로 물들어 개와 같이 비천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명심하고 나를 내려 놓을 때, 나 자신을 버릴 때 겸손하게 주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이 여인은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모욕적인 말에도 요동치 않고 겸손하게 은혜를 간구 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여인이 조금이라도 예수님의 사랑을 의심했더라면 사정 없이 절망과 낙망 속으로 떨어졌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의 모습이 있습니까? 무시당하고 멸시당하더라도 주님에 대한 믿음 하나 만으로라도 이기고 나갈 굳은 믿음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주임을 믿고 어떠한 경우에라도 신뢰를 잃지 않을 때, 간구한 바를 이루어 귀신 들린 딸의 나음을 입었던 이 여인처럼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귀한 은총의 시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부록 3 – 설교 원고3 (2014년 11월 30일 주일예배)

제목: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본문: 마가복음 5: 25-34

오늘 새 생명 초청주일이자, 홈 커밍 선데이, 한울의 날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오늘 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말씀을 듣고 어린 소녀의 병을 고쳐주기 위하여 길을 가고 계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기 위하여 예수님의 뒤를 따라 갔습니다. 어떤 사람은 호기심으로 따라 갔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실패를 바라며 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을 익히 알던 어떤 사람은 따라가며 예수님이 행하신 그의 능력을 전파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불쌍한 처지에 있는 한 여자가 예수님이 지나 가신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 여자는 12 년 동안 혈루병으로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여인이 하혈을 하는 병입니다. 2000 여년전이니까 지금처럼 의학이 좋았을 때가 아니었겠죠. 또 의학의 혜택을 누구나 누릴 수 있었던 때도 아닙니다. 이 여인은 많은 의사를 찾아 다녔습니다. 그러나 전혀 도움을 받지 못한 채 병은 점점 악화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몸은 몸대로 약해지고

정신적으로도 쇠약해지고, 경제적으로도 12 년 동안이나 이 의사선생님, 저 의사 선생님, 훌륭하다는 의사 선생님은 다 찾아 다니면서 진료를 받는 동안에 가진 것은 거의 없어 졌습니다. 가정을 가질 수도 없는 불행한 처지에 놓였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회당에도 갈 수가 없었습니다. 구약의 법대로 하면 이 여인은 부정한 여인 입니다. 본인 뿐만이 아니라 이 여인이 손을 대는 물건이나 사람도 부정해 지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가정을 이룰 수도 없고 사람들과 어울릴 수도 없으며 함께 삶을 사는 것 자체가 거부된, 즉 공동체에서 거부된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여기서 오는 고통과 근심이 떠날 날이 없는 여인이었을 겁니다. 오늘 주신 본문 말씀에 의하면 이 여인은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당했고, 있는 것도 다 허비하였지만 아무 효험도 없었고 도리어 더 중하게 된 형편이라는 겁니다. 이런 때에 예수님의 소문이 들려 왔습니다.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절망한 자에게 소망을 엎드려진 자를 다시 일으키시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 여인이 생각했습니다. 이 소문이 사실이라면, 이 분은 나의 12 년동안 고치지 못한 이 병을 고쳐 주시리라. 12 년간 가족도 떠나고, 친구도 다 떠나고, 있는 재산도 다 날리고, 웃음 없이, 기쁨 없이, 그저 부정한 여인으로 살아야만 했기에 늘 위축되어 살던 삶이었기에 진정한 사람으로서는 살아 갈 수 없는 이 여인에게 진정한 소망이 생겼습니다. 예수님만 만난다면 내 병을 고칠 수 있겠다.

우리는 이 여인의 이름을 모릅니다. 어디서 살았는지도 모릅니다. 단지 이 여인의 처지가 너무 안 되었다는 것만을 알 수 있을 뿐입니다. 말하자면 이 여인을 보며 우리의 모습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27 절 " 이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왔다" 했습니다. 부정한 여인이니 군중 들 틈에 있으면 안됩니다. 자신의 부정함이 있는 사람은 사람들이 다가오면 자신이 부정하다고 소리치며 사람들을 멀리 보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 앞에 나서지 못하고 뒤로 들어올 수 밖에 없는 여인이죠. 이 여인의 소망이 얼마나 간절한가를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예수님을 만나 내 병을 고침 받지 못한다면 평생을 이렇게 살다가 죽어야 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다시금 내 가족에게로, 친구에게로, 내가 살던 마을로 돌아 갈 수 없다는 절박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소망이 있습니다. 소문으로만 듣던 예수님이 내 앞을 지나갑니다. 이 때를 놓친다면 이런 기회가 다시 오지 않을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마지막 구원자이자 희망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참을 기다리니 사람들의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많은데 정작 보여야 할 예수님은 보이시지가 않습니다. 내 소망의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 속에 가려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 옆에는 회당장을 비롯해서 온 마을 사람들이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또 예수님은 회당장과 아주 급한 걸음으로 어딘가를 향하여 가고 계셨습니다.

이 광경 속에 이 여인은 머리를 들고 예수님께서 오시는 길을 바라보면서 속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 틈 속에서 여인으로서 그것도 다른 사람들에게 접근 할

수 없는 부정한 여인으로 어찌 예수님 앞에 나설 수 있겠는가? 괜히 나섰다가 많은 남자들 앞에서 또다시 창피와 모멸과 핀잔을 듣는 건 아닌가? 자신도 없고 두려움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순간을 놓치면 영영 나는 고침 받지 못할 겁니다. 영영 이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은 없고, 그러나 이 여인은 확신이 있었습니다. 내가 들은 그러한 소문의 예수님이라면, 내가 앞으로 당당히 나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28 절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나을 터인데......'

이 여인은 예수님의 소문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동안 예수님의 일행은 점점 더 가까이 옵니다. 이렇게 바라만 보다가는 그냥 지나가 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용기를 냅니다. 있는 힘을 다하여 군중 속으로 뚫고 들어가 예수님의 뒤로 가까이 갔습니다. 그리고 손을 내밀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 순간 12 년동안이나 본인을 괴롭혔던 병은 떠나가고 몸은 거뜬해지고 새 힘이 솟는 정말 무어라 표현할 길이 없는 건강이 솟아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 여인은 마침내 무서운 병이 나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아무도 이 여인을 그리고 이 사건도 알지 못했습니다. 이 사실은 예수님과 이 여인만이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에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이 여인은 너무 기뻐서 어쩔 줄을 몰라 하며 급하게 군중들의 틈을 빠져나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걸음을 멈춥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군중들을 바라보시면서 "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묻습니다.

이때 옆에 지나가던 제자들은 무심코 대답하였습니다. “선생님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누가 손을 대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다. 그가 누구냐” 하셨습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 말씀은 사람들이 많은데 서로 밀치고 부딪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일부러 손을 댄 사람이 있다. 그냥 스치면서 내 옷에 손이 닿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생각을 가지고 손을 댄 사람이 있다. 목적을 가지고 뜻을 가지고 손을 댄 사람이 누구냐?’ 고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매 주일, 또 오늘도 초청 받고 오시고, 한울 식구들이기에 오시고, 수개월 아내의 성화에, 남편의 성화에, 아버지의 성화에, 어머니의 성화에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 중에 누가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을 만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사람을 찾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군중 속의 한 사람들처럼, 그냥 구경 삼아, 재미 삼아 이렇게 오셨다가 돌아가시는 것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 여인은 자기가 한 일을 끝 내 숨길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떨며 예수님 앞에 나아와 말합니다. 자기가 왜 예수님께 손을 댔는지 그리고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는 순간에 내 병이 어떻게 나았는지, 모든 사람들 앞에서 말했습니다.

34 절 “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 하였다.” 예수님께서 여인을 향해 딸아 라고 표현하시는 곳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사실 이 여인은 개인적으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눈 적도 없는 단순히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일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겉옷에 손을 대는 순간 주님께서 그것을 느끼시고 그 여인을 찾기 위해서 가시던 길을 멈추십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손댐이 하나님의 능력을 이끌어 내고 하나님의 관심을 이끌 수도 있음을 보여주시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수많은 사람 가운데 이 여인은 자기의 전 희망을 예수님께 걸고, 나아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고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시간 이 성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모두 주님을 보기 위해 길가에 나오신 군중들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저 호기심으로 재미 삼아 나온 것이 아니라 이제 이 여인과 같이 내게 있는 소중한 뜻을 품고 주님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한다면 나을 수 있고, 해결 받을 수 있고, 주님의 딸이라 불리움을 받을 수 있으리라 여기시고, 주님의 옷에 손을 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는 사실 빈손 들고 왔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갈 자격도 없고, 이 시간 그저 빈손 들고 주님 앞에 나아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것뿐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서 또 수많은 사람이 지켜 보는 가운데 자기가 병 고침을 받은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다 들었습니다. 우리도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들은 숨기지 말고 그 사실을 말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말을 듣고 용기를 얻어서 모든 세상일을 헤치고 나아와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려고 할 사람이 생길 것입니다. 내가 초청한 분들, 우리 한울 식구들, 정말 오랜만에 홈커밍 선데이로 이곳을 찾으신 우리 옛 교우들, 오늘 우리 가운데 계시는 주님을 꼭 다시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어야만 할 사람들입니다. 이 주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이 자리에 계십니다. 그 주님이 지금 우리 앞을 지나가시고 계십니다. 이러한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밀어 닥칩니다. 누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옷자락에 손을 대시겠습니까? 여러분께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다면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찌어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